

## 第 2 分 科 會

(産 業 協 力 分 野)

〈코디네이터〉

韓國側：金圭七 産業技術情報院 院長

日本側：大慈彌省三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第 2 分科會 백그라운드 페이퍼〉  
(産業協力分野)

## 韓・日 産業協力の 展望과 課題



産業研究院 日本研究센터  
所長 柳 寛 榮

### 1. 最近 産業協力の 特徴

가뜩이나 근년에 일본의 對韓投資가 부진상을 보이고 있고 한·일 양국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당분간은 일본은 불황하에서 그리고 한국은 IMF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본의 對韓投資나 한일간 산업협력이 양적으로는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근년 한일협력에 있어서 몇가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양국간 산업협력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본다.

첫째는 협력의 대상업종과 협력방식이 다양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한·일 양국간에는 전통적인 생산면에서의 수직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공동개발·생산·조달·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내분업과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NEC·미쯔비시, LG반도체-히타치, 현대전자-후지쯔 등 반도체산업에서 일기 시작한 제휴가 자동차, 가전, 서비스 등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한국의 산업·기술발전 및 기업성장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종래와

같은 자본참가나 직접투자외에 전략적 제휴 등 자본을 수반하지 않은 방법(new forms of investment)으로 양국기업이 서로가 가진 경영자원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협력의 seeds와 needs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에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80년대 중반이후 円高이다. 円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기업들이 아시아를 무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아웃소싱(out sourcing)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한 일본기업들의 엔高대응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둘째는 협력지역의 광역화와 다극화 경향이다. 종래의 국가단위의 협력에서 지방 내지는 지역단위의 협력이 규슈지역을 시발로 구체화,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道와 일본의 縣 등 지방자치체간 협력이 활기를 띄기 시작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무역 및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협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일 모두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한·일의 각 지역간·단위지방을 잇는 소위 포인트 포인트(point to point)방식을 통한 협력의 多極化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효율성을 높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협력은 한·일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 등 소위 광역경제권내 다국·지역간으로 협력의 프런티어를 넓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일기업들의 활동영역이 양국시장을 넘어 제 3국으로 광역화되고 있다. 특히 한·일기업의 공동진출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상분야에 있어서도 종래의 건설, 유통, 플랜트 등에 이어 최근에는 철강, 전기 등 제조업분야에서 공동진출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삼성전자와 NEC간 유럽에서 생산 제휴, 1996년 말레이시아에서 LG 전자와 히타치간 합작투자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인도네시아 국민차 문제나 대형 인프라 관련 공사의 수주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기업의 해외전개과정에서 경합이 강하게 발생하는 분야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또 양국 기업간에 경쟁보다는 생산분야의 차별화와 상호조달, 상대가 우세한 지역에서의 판매망 이용 등 업무협력을 모색하는 사례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셋째는 한·일간 상호투자(cross investment)이다. 세계의 국가들을 대내외 직

접투자자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대외직접투자도 많고 대내직접투자도 많은 나라이다. 말레이시아는 대외직접투자자는 적은 반면 대내직접투자자는 많은 나라이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일본은 대외직접투자자는 많은 반면 대외직접투자자는 적은 나라, 한국은 대외투자 대내투자 모두 적은 나라로 각각 구분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화, 특히 대내적인 국제화가 부진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도 최근 대내직접투자환경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것이 앞으로 대내직접투자 확대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를 기업측면, 특히 투자진출면에서 볼 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기업들의 일방적인 대한투자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양적으로도 줄고 있고 진출목적도 변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들의 대일투자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일본기업들의 대한투자는 高임금등 한국의 高비용구조화로 생산기지를 ASEAN이나 중국 등지로 이전함에 따라 절대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득증대로 인한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한 가령, 소프트·서비스업에의 진출이나 한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일본의 對韓투자 추이를 보면 1992~1995년 엔高하에서는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급증하였으나 1995년 중반이후 엔低하에서는 크게 줄었다. EU나 미국의 對韓투자가 급증경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 4.2억달러 [1995] → 2.6억달러 [1996] → 2.7억달러 [1997], 미국 : 6.5억달러 [1995] → 8.8억달러 [1996] → 32억달러 [1997], EU : 4.7억달러 [1995] → 8.9억달러 [1996] → 23억달러 [1997]) 이 기간중 일본기업들이 불황하에서 대외투자체력이 약화된 것이 이의 큰 원인이라고 보나 일본기업들의 대외투자유인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엔화환율이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전체 해외투자 감소세에 비하여 對韓투자의 감소세가 급격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 419억달러 [1994] → 527억달러 [1995] → 487억달러 [1996])

최근의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의 대거철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현지합작기업에의 추가출자·증자, 주식

양수와 함께 수출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일진출은 종래는 판매거점 설치, 기술 및 정보획득, 거점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중견·중소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눈에 띄고 있다. 일본의 경우 高지가·高임금 외에도 외국기업들의 대일투자비용을 높히는 많은 눈에 보이지 않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이 일본에 단독직접투자진출보다는 M&A를 유효한 투자방식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일본의 생산기업을 매수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설계기술, 생산기술을 흡수하여 국내기업에 전파하려는 목적과 일본기업의 브랜드력을 활용하여 한·일 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자사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나, 아니면 일본시장에서 自社の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것 등이 對日M&A투자의 주요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 2. 韓·日의 構造調整과 産業構造·企業活動

한·일 다같이 개혁하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도 90년대 들어 21세기형 경제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제도개혁을 실시중에 있지만 한국의 IMF개혁은 과거 일본의 GHQ 개혁 이상의 大개혁이다. 이제까지의 한국형 성장방식이나 산업화방식의 전면 수정을 가져오는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개혁과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개방하에서 기업들이 경영합리화와 질적경영을 높히는 작업이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와 수입의 완전개방, 기업의 투명성 제고, 정리해고, 기업조직의 개혁 등이 모두 이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 산업협력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문제들도 해소되고 있거나 앞으로 해소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 발발이후 일본의 경제전문가들 눈에는 이제까지의 한국의 성장전략이 야심적이고 무모하게 비쳐졌을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소수의 대규모 量産型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화전략, 이를 위한 官治金融과 기업의 차입경영체질이 끝내는 외채상환의 重壓을 가져왔다

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IMF개혁은 이러한 성장전략과 기업경영방식에 중지부를 찍게 할 것이다.

한국이 압축형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기술력이나 기업의 경영력 수준에서 ASEAN국가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과잉투자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생산·수출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take off 후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take off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집약형으로 이행에 필요한 휴먼리소스 내지는 휴먼 캐피탈 육성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국제분업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일본기업들처럼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질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장기안정성장의 기반구축과 더 나아가 한국형 경제시스템에 이어질 수 있는 IMF 플러스알파 개혁에 앞장서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없어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기업중 어느쪽도 금융개혁, 재벌개혁만 이야기하지 기술개발은 언급도 안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라는 駐韓 일본경제인들의 따가운 한국비판은 그야말로 한국기업들의 허를 찌르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重厚長大한 산업중심의 산업구조, 핵심부품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基盤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수입의존형 구조, 핵심기술의 낙후 및 기술개발력의 低位, 산업간 연관관계의 미약 등 소위 外華內貧型 산업구조가 시정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성장유망산업·벤처산업,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인가는 구조조정 여하에 달려있다. 앞으로 경제위기의 再發방지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구조조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한편 일본 역시 구조조정이 당면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하시모토(橋本)개혁이라는 이름의 6대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불황하에서 기존의 성숙기에 도래한 많은 산업들이 사업혁신으로 돌파구를 열고 있다. 사업혁신법과 신규사업법 등이 이미 1995년에 입법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 기업의 운신폭을 넓혀주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는가 하면 각종 사업제휴를

통해서 업계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15개 신산업육성 프로그램도 마련된 상태다.

일본에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국제조화형 산업구조가 실현되고 내수주도형 성장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일련의 제도개혁과 규제완화가 한층 강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본기업들의 글로벌생산체제는 확대될 것이나 이것이 full set형 산업구조 시정에 이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제까지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아시아의 분업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해 온 소위 아시아지역의 雁行形態發展메커니즘이 붕괴위험에 있는 바 이를 복원시켜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일본의 아시아경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을 아시아적인 글로벌한 시각에서 착수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일본의 선진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듯이 각국의 발전단계나 지역특성에 맞게끔 산업이나 기술 등 각종 기능을 재비치하여 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나 소비시장(현지시장 진출확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아시아를 시야에 넣은 글로벌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핵심부품이나 생산설비의 대아시아 수출증대가 무역흑자를 증대시키고 있고 각국과의 무역불균형 확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진출방식으로는 일본과 아시아국가들과의 마찰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3. 産業協力の 새로운 needs와 seeds

이상과 같은 한·일의 구조조정작업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의 needs와 seeds를 창출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신산업 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조직과 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으로 이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개방과 개혁은 한일간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의 한층 다양화할 수 있는 환경을 造出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협력의 프런티어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협력seeds라고 볼 수 있다.

개방화·정보화·네트워크화 시대에 한일간 「경쟁과 협조」라는 관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협력메뉴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구조조정 촉진에 필요한 협력 또는 구조조정의 결과 방출되는 자원을 상호 활용하는 협력, 틈새분야의 발굴, 기존 협력사업의 구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재산업분야의 협력이라든가, 고용 창출형 신산업분야의 협력, 문화관련산업 협력, 환경기술협력, 벤처산업협력, 월드 컵공동개최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한국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자본재산업분야의 협력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첨단기술도 중요하나 기반산업기술이 없이는 첨단기술도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이미 한일 재계지도자들은 기반산업육성이 양국간 무역불균형 축소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수평분업 확대를 통하여 무역의 확대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전임을 다같이 인식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이 IMF시대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자본재산업을 포함한 기반산업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 이 분야에 한일 산업협력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리딩산업 육성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환경정비가 정부의 산업정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공히 경험이 부족한 초기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양국간 정보교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특히 민간차원에서는 벤처기업 협회간 교류채널 구축 및 벤처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벤처기업간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高임금구조가 對韓投資의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다른 동남아국가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다 형태와 분야를 불문하고 외국인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데다 전에 없던 지원책까지도 마련해 놓는 등 일련의 투자환경정비는 일본의 잠재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유인이 되리라고 본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한일지역간의 포인 투 포인트방식의 협력이 한층 확산될 것이다.



요컨대 한일간 산업내 수직·수평분업 즉 공정간 분업, 제품차별화형 분업확대를 위한 협력메뉴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발굴가능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일본으로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이 산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아시아 그 seeds가 잠재하고 있는 곳이 많다. 어느 정도의 자본과 기술만 뒷받침해준다면 이러한 seeds가 산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본이 지금 신규산업화성화를 위해 벤처산업 육성에 열심이나 이 범위를 아시아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로 성공사례를 몇 개 만들어 낸다면 일본의 신규산업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일본은 양적인 기업진출 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이나 시각까지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 4. 産業協力 活性化를 위한 課題

이러한 협력의 새로운 seeds와 needs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국간 산업협력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첫째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양국간 인식의 갭(perception gap)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양국의 기업, 협력지원기관, 정부 등 관련주체들이 수많은 협력메뉴를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협력도 거래의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상호 니즈가 맞지 않아 구상으로 끝나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협력을 둘러싼 양국 당사자들간에 인식의 차이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측이 대일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너무 한일관계에 특수성을 부여한 나머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 또 일본측으로서는 너무 부메랑효과를 의식하는 것들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온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한일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최근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한국측의 산업기술경쟁력 약화에서 구조적인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느정도 신뢰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양국간 심연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웅어리져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 보이지 않는 웅어리를 타파하고 진정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soft 인프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화의 장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공동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기존의 많은 협회외에 韓日산업·기술협력재단과 日韓산업기술협력재단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이라도 학제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해답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 또는 경제교류라 하면 거래의 성격이 농후하다. 협력은 거래차원을 넘는 문자 그대로 협력이다. 거래에도 신뢰라는 요소가 중요할진데 협력의 생명은 바로 신뢰에 있다. 한국기업인들로서는 『한국사회에서는 신뢰가 돈이라는 것을 아직도 덜 깨달은 것 같다』, 『기업들의 투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 주한 일본경제인들의 비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일 양국간 산업협력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력메뉴를 발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과 함께 기존의 협력사례를 정밀분석,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양국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안정 및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지역간, 중국 등 주변국가를 포함한 광역경제권 협력을 인프라로서 공항 역내 고속도로 등 물적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정보네트워크를 특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보망 구축을 기초로 한 한·일 양국의 지방간 정보시스템 구축은 양국의 지방경제발전에는 물론 한·일 양국 주도의 동아시아경제협력 확대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적교류와 대화의 장을 확충함으로써 가일층 인식의 gap 축소, 신뢰기반 구축에 양측이 노력하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한일협력을 한 차원 높힐 수 있는 길이다.

## 5. 韓・日經濟關係의 未來

작년 일본 어느 신문에선가 韓・日관계가 佛・獨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다. 매우 공감 가는 내용이다.

독일하면 일본과 같이 敗戰後 근면한 국민성을 바탕으로하여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견고하고 정밀한 독일제품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경제력면에서는 독일에 다소 못미치지만 역시 예술감각과 첨단성을 겸비한 제품이미지와 함께 섬세한 국민성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兩國 모두 양산형 산업중심의 산업발전단계를 넘어 소수 정예부대 중심의 질감높은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선진국중의 선진국이다.

이들 두나라도 한일간에서 처럼 역사적인 용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대화와 인적교류 및 정책협조를 통해서 양국간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매력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에도 벤츠나 BMW가 달리고 있는가 하면 독일에는 르노와 시트로엥이 달리고 있고 상대국산 포도주와 치즈를 즐기고 있다. 韓・일의 경우처럼 系列 등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다. 양국 기업들은 상대국 어느지역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고 활발한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다.

韓・日관계는 어떠한가. 극심한 무역불균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경제력과 기술수준면에서 佛・獨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는 데다 앞에서 지적한 협력장애요소들이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독일과 같이 패戰後 국민적인 콘센서스와 근면성을 바탕으로하여 아시아 유일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선망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면에서 양산형 장치산업, 근대산업과 전통산업, 소량다품중산업 등을 끌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 정예부대 중심의 독일의 견고한 산업구조와는 대조적이다. 수입침투율 상승을 우려하는 풀세트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質感있는 소수 정예부대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바꾸고 상당부분을 후발국에게 이양하고 제품수입을 한층 늘려나가야 한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패戰의 경험을 치렀던 만큼 과거 영국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정신무장을 해오고 있다. 이 점이 경제대국으로 발전케 한 원동력이지만 앞으로도 그래야만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아시아 경제위기는 당사국들은 물론 일본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래에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한·일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구책 못지 않게 일본의 협력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第 2 分科會 백그라운드 페이지〉  
(産業協力分野)

## 日韓産業의 글로벌화와 2國間 經濟關係의 變容 : IMF時代에 대한 示唆點



靑山學院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深川 由起子

한국은 1997년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에 힘쓰고 있다. 그 중심은 실물·금융 양면에 걸친 급속한 시장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국내경제를 글로벌화시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간의 무역은 오랫동안 일본측의 수출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처다변화 등으로 수입을 억제해 왔다. IMF에 의해 앞당겨져서 실시될 수입처 다변화 조치의 철폐나 매수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개방은 양국간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일한의 경제관계는 쌍방의 산업이 급속히 글로벌화된 '90년대에는 이미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었으며, 2국간의 관계만을 운운할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은 이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본고에서는 쌍방의 글로벌화가 2국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용시켰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IMF체제하에서의 경제교류촉진에 관한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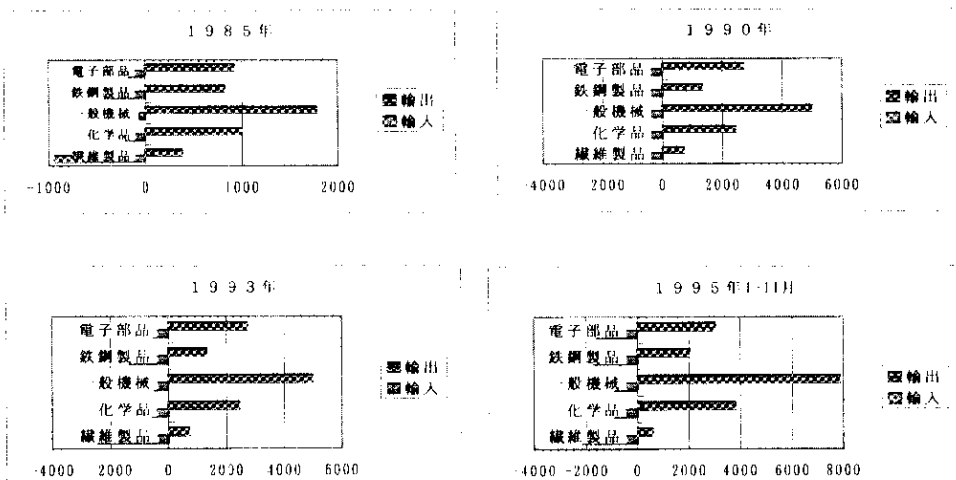
### 1. 글로벌화와 2國間 貿易

## (1) 일한무역의 구조

일본의 대한무역은 화학·철강제품·일반기기·전자부품·기계제품 등 5대품목이, 1995년에는 수출의 61.6%, 수입의 57.9%를 차지했다. 그 수출입의 밸런스는 <그림 1> 과 같이 추이되어 왔다. 1985년 시점에서는 일본측의 수입초과는 섬유제품뿐이었지만 90년대가 되면서 철강도 수입초과가 되었다. 아직 수입초과는 아니지만 전자부품, 화학품의 수입도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초과폭이 근년에 와서 다시 급속히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일반기계가 요인이 되고 있는 바가 크다. 한국측의 통계에 의하면 부품·소재를 더한 자본재의 수입초과폭은 '95년에 166억 8000만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림 1> 주요품목별 일한무역의 추이

(단위 : 100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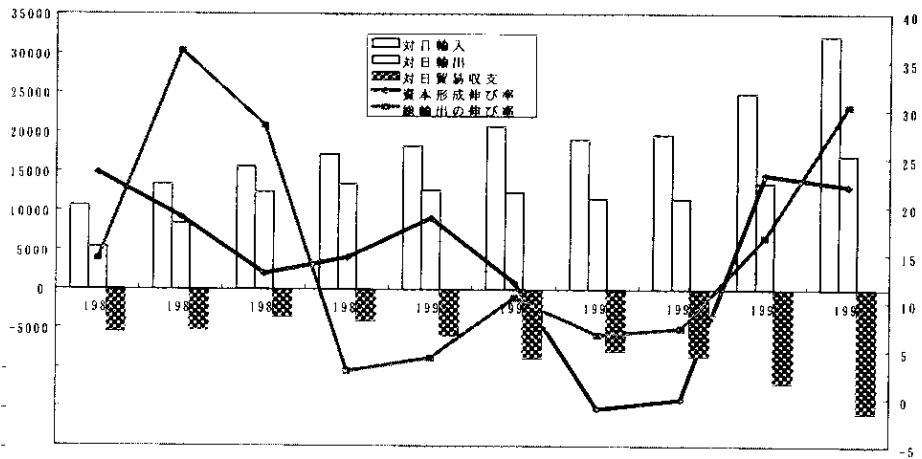


<그림 2> 로 한국의 고정자본형성(건설을 제외)의 신장과 대일수입의 추이를 보면,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종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양자간에는 비교적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 한국의 수출은 '87년에 가장 높은 신장을 보인 후 '89년에는 급속히 둔화되었고, '91년에 약간 회복되기는 했지만 내수주도형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엔고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서 재차 급속한 신장세로 전환된 것은 '94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간 고정자본형성의 신장은 수출을 선취하여 '86년을 정점으로 해서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다. '90년에 약간 회복했지만 수출의

움직임과 더불어 '9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일수입은 '86~'91년은 고정자본형성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91~'93년에는 고정자본형성의 둔화와 더불어 감소되었고, 이어서 '94년 이후의 수출·고정자본형성 회복의 국면에서는 이에 따라서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다. 설비투자자에 따른 자본재의 수입이 대일수입초과폭을 확대시키는 전통적 구조는 엔고조정기간의 10년간에도 변화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림 2〉 한국의 경제동향과 대일관계

(단위 : 100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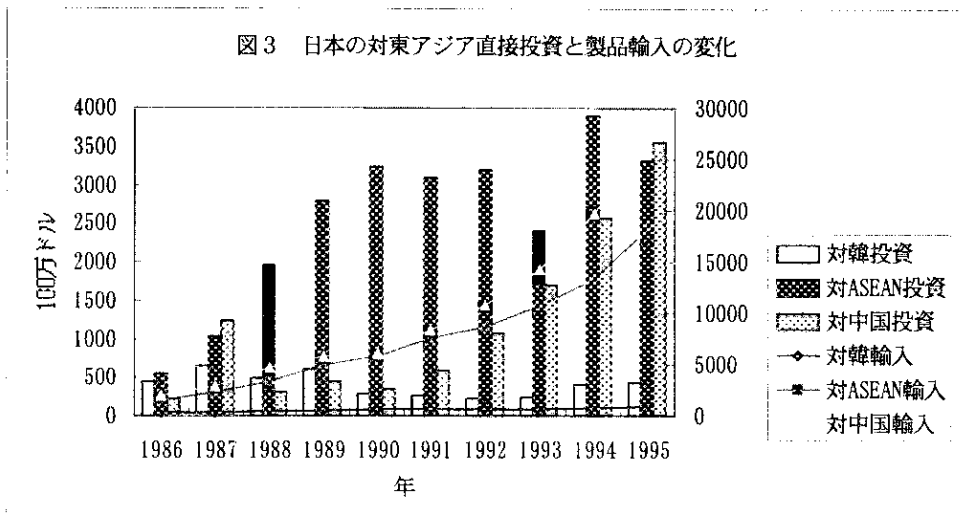
## (2) 일본기업의 해외생산과 일한무역

한편 일본의 대한수입은 엔고가 요인이 된 해외생산의 급속한 진전, 해외거점으로부터의 조달을 섞여 가는 형태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림 3〉은 東아시아의 주요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와 제품수입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지만,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ASEAN, 중국에 관해서는 제품수입의 신장도 높고, 한국만이 양쪽 모두에 관해 한계점에 달한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제품수입비율은 1985년에는 31.0%에 불과했지만, '95년에는 59.1%까지 상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퇴되어 왔다. 엔고당초에는 일본 외의 東아시아에서 가장 공업화수준이 높았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되었고, 1988년에는 일본의 제품수입 전체의 10.5%를, 東아시아로부터

의 수입의 36.0%를 한국 한나라가 차지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기업은 집중적인 동아시아 투자를 ASEAN, 중국에 투하했다. 이들 해외거점으로부터의 기업내 조달이 본격화되면서, ASEAN·중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은 한국의 쉐어를 잠식하여 증대되었다. '88년에는 일본의 제품수입중 겨우 3.7%에 불과했던 ASEAN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점유율은 '95년에는 9.2%로, 중국은 5.1%로부터 무려 14.0%로 약진했고, 한국의 7.2%를 앞질렀다.

〈그림 3〉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과 제품수입의 변화



아래의 〈표 1〉은 한국에서 1988년 당신 상위를 차지했던 수입품목이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는 남자용 의류(넛트를 제외), 쉐터류 등 섬유류의 점유율의 감퇴가 눈에 띄는 한편, 중국의 대두가 점유율에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다만,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경합국에 대해 패배를 당한 것은 한국의 임금 앙등과 이에 이어서 진행된 산업조정의 결과이며, 일본시장에서만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섬유나 잡화를 대체해야 할 기계류, 특히 TV나 VTR에 관해서 '89년에는 거의 실적이 전무였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등장하여 한국의 점유율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AV기기부품, 반도체소자에 관해서도 이 경향은 계속되고, 또한 중국이 이를 추격중이다.



말레이시아나 중국의 대두는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거점 조달의 본격화를 받아 들인 것이다.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TV에 관해서는 1985년의 일본의 RIC지수(수출 - 수입/국내생산)는 수량 베이스로는 74.8%였지만 '93년에는 불과 1.5%까지 격감했다(금액 베이스로도 67.6%에서 15.5%까지 하락했으며, 수량·금액 베이스의 격차는 일본이 고부가가치상품에 특화해 왔기 때문에 생겼다). VTR에 관해서도 각각 83.1%에서 70.7%까지 하락했다. 칼라TV의 해외생산비율은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71.9%, VTR에 관해서도 41.6%에 달했다.

〈표 1〉 한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과 그 경합상황

	한국 1989	1992	1995	중국 1989	1992	1995	말레이시아 1989	1992	1995
廣幅板(鐵鋼)	41.8	47.1	53.6	-	-	-	-	-	-
溶鍛接鋼管	85.4	82.7	73.9	-	-	-	-	-	-
男子用外衣類	38.0	27.3	4.7	29.2	50.7	62.6	0.2	-	-
웨터類	33.5	28.4	13.1	26.2	49.4	58.0	0.1	-	0
女子用外衣類	22.4	15.3	26.9	32.5	51.5	66.7	0.2	-	0
IC	11.2	8.7	27.7	-	-	0	2.5	3.0	2.7
半導體素子	24.4	24.7	15.2	-	-	4.3	0.4	15.2	13.4
AV機器部品	35.1	30.4	16.6	2.6	9.9	23.7	3.5	6.7	12.3
TV	65.8	56.1	19.4	0.5	0	7.8	0	17.6	29.8
VTR				0	0	6.0	0	43.7	53.6
事務器機器部品	8.4	6.8	6.8	0.1	-	4.8	2.5	2.1	2.6
熱電子管	41.7	24.5	30.2	1.6	0.9	12.2	-	-	-

출처) 일본무역진흥회 「일본의 제품수입」 각 년도판으로부터 작성

엔고 조정이 시작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기업의 선택은 범용품의 국내수요를 OEM으로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자체거점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냐란 것이었다. 그 선택은 그 때마다의 환율변동이나 한국의 산업고도화의 템포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1) 새 거점의 양산효과를 올린다, 2) 가격조정(협상)코스트를 축소화한다, 3) 품질관리나 애프터 케어의 용이성등 이유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어도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다. 〈표 2〉는 통산성이 3년에 한 번씩 해외의 일본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해외투자 통계요람」에 수록)에 의한 것이다. 재일기업의 수입에 차지하는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을 보면 전기기계·전자기계는 약간 하락되고 있지만 1988년과 비교하면 일반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관해서는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조달비율이 상승되고 있다. 앞에 제시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으로 비교적 높은 셰어가 안정적으로 계속 확보되고 있는 것은 해외법인으로부터의 조달이 일본시장에서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동시에 한국이 우위에 서 있는 철강제품 등에 한정되어 있다. 즉,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이관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이들과의 경합이, 고부가가치품에 관해서는 일본의 국내생산 자체와의 코스트 경쟁을 한국에 대해 요구하게 되어 수출환경이 악화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일본기업의 기업내 무역과 현지법인조달의 변화

(단위 : %)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총수입		현지법인의 제삼국조달	
	1988	1993	1988	1993
食品	11.4	14.8	0	2.5
纖維	27.9	27.2	45.1	39.3
木材・종이펄프	25.7	32.1	0	1.8
化學	17.1	6.8	17.4	19.3
鐵鋼	11.0	8.6	11.9	36.2
一般機械	12.0	52.4	1.2	0.8
電氣機械	49.2	33.3	13.6	18.1
輸送機械	21.9	88.5	10.7	3.6
精密機械	36.4	53.9	7.5	17.5
기타 製造業	35.9	48.9	10.0	12.2

출처) 풍산성 「해외투자 통계요람」 1994년도 및 1988년도판에서 작성.

주) 제삼국조달의 항목에 있는 「현지조달」이란 재 ASEAN의 현지법인이다.

한편,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반기계등 자본재는, 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습숙(習熟)형 기술의 형성에 시간이 걸리고, 동시에 대량생산형 제품이 아니므로 후발국에서는 생산코스트를 낮추기가 어렵다. 일본의 공작기계의 RIC지수는 원래 내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47.0%로 VTR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110사 중 현지 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하며, 그것도 구 미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해외생산비율은 낮고, 부품을 포함해도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많지 않다. 또한, 반도체용 재료로 대표되는 특수화학품등 중간재도 일본국외에 생산거점을 만들만큼의 수요는 아시아에는 아직 없다. 해외생산비율이 높아지면 일반기계나 특수화학품 등에 관해서도 일본계기업에 의한

한국에서의 현지생산 또는 제삼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대일수입을 대체할 것이 상정되는 바, 현상에서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이 대반을 차지하게 된다. 엔고 직후와 비교해서 근년은 한국의 대일수출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편, 대일수입이 여전히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본산업의 입지재편을 적지 않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계기업은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부품조달 네트워크를 일제히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유발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시 <표 2>로 되돌아가서 ASEAN지역에 입지하는 일본계기업의 제삼국 조달비율을 보면, 1988년부터 '93년에 걸쳐서 화학, 철강,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의 해외진출 심화와 더불어 제삼국으로부터의 조달이 증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국이란 거의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ASEAN외의 제삼국」이란, 결국은 한국을 포함한 NIES로부터의 조달이 증가되고 있다고 실태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의 태국,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품수출

(단위 : 1000달러, %)

	태국			말레이시아		
	1992	1995	평균신장율	1992	1995	평균신장율
熱電子管	42444	95227.9	30.9%	56464.5	80354.9	12.5%
半導體素子	4761.6	18027.8	55.9%	10797	18039.1	18.7%
內燃機關	276.5	280.4	0.5%	-	-	-
事務機器部品	38198.7	12743.4	-30.6%	19954.5	34027	19.5%
플라스틱製品	1408.8	3435.5	34.6%	967.3	2115.3	29.8%

출처) 한국통관통계 각 년도판으로부터 작성

예전대 <표 3>에서 한국으로부터 태국·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을 보면 열전자관, 반도체소자, 플라스틱제품등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높은 신장세로 이들 지역으로 가고 있다. 한국기업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활발화시켜 왔으므로 한국기업 자체에 의한 조달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비중은 어느쪽인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한국제품에 관하여 일본계의 유저가 많다는 것은 부정 못할 것이다. 일본기업의 이전과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범용부품의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이전되면 대일수출은 나름대로 대체가 진전된다. 나아가서 고도화를 기하는 일본의 수요

수준에 걸맞는 고정도·구부가가치품으로 한국이 진입하지 않는 한 그 대일수출 삭감효과를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3) 한국기업의 해외생산과 일한무역

다음에 한국의 해외생산과 일한무역에 대해 생각해 본다. (1)에서 언급한 일본의 대중국·ASEAN수입에는 당연히 섬유와 같은 한국계기업에 의한 생산도 포함된다. 현지로부터의 대일공급이 한국으로부터의 대일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해도 불가사의하지는 않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대해 일본이 특혜관세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당면은 없으며, 한국기업에 의한 대일 우회수출은 해외생산의 본격화에 따라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일본시장에 있어서 made in KOREA의 웨어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한국기업이 생산축소를 강요받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의 진전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만을 규제하는 이제까지의 수입처 다변화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간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수입자유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완성품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여 자동차나 가전품 등에 있어서 국내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일본계기업이 주요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국산화율을 충분히 올리고 있는 이제부터는 원산지규제의 측면에서도 규제의 정당성은 희박해진다. 일본계 기업이 진출처와의 무역에 있어서 한국측의 흑자가 큰 나라에 관해서는 더욱 규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까지는 일본이 국내생산을 증지시킨 품목, 예컨대 소형TV 등에 관해서는 한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립해 있고, 한국 자체의 해외이관과의 속도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삼국 규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어 한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제삼국에서 일본계기업의 생산이 시작된 경우에는 국내산업은 이제까지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섬유, 잡화, 신발, 가전 등에 있어서는 한국의 해외생산비율도 상승되어 오고 있으며, 과거 한국이 일본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중간재수요가 그 진출처인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한국에서도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이 중심이며, 기업이 이전되어도 큰 대

일수입 삭감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을 대신 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내의 설비투자가 활발화되었음으로 인해 보다 기술집약성(부가가치)이 높은 자재의 수입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한의 생산이관에 따른 산업구조전환의 템포의 차이가 쌍방의 수출입효과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한국측에서 볼 때 아래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은 한국의 대일직접수출에 관해서는 경합격화나 유저의 이전으로 마이너스효과를 가졌지만, ASEAN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대일간접수출의 확대에 대해 기여해 가고 있다. 또한 대일직접수입 삭감이란 의미로는 일본으로부터 ASEAN쪽으로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올 지 모른다. 다만, 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NIES나 ASEAN제품과의 경합을 의미함에 불과한다.

〈그림 4〉 일한기업의 대아시아 진출과 한국의 대일무역불균형 시정효과

	대일직접수출 증가	대ASEAN수출/ 대일간접수출증가	대일직접수입 감소	대ASEAN수출/ 대일간접수입감소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	+ / +	+ or —	+ or 0 / — or 0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	+ / —	+	— / —

한편,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종전형 산업의 대일수출면에서는 마이너스효과를 갖지만, ASEAN시장의 확대 및 대일간접수출의 확대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대일직접수입은 유저의 감소에 의한 삭감효과는 있지만, 산업고도화를 위한 신규수요 발생이란 의미로 현상으로는 마이너스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한산업은 그 주체의 글로벌화로 인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2국간의 무역불균형을 가지고 단순히 일한의 산업경쟁력을 운운하거나, 더구나 일본산업이 한국산업을 「중속」시키고 있다고 하는 등 논조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자원부존이 비슷한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산업선택을 해서 급속히 발전되어 왔다. 산업정책운영의 특징

은 대일수입규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여 단계적인 자유화로 진입해 왔다는 점에 있지만, 향후에도 그러한 종전의 발상을 유지하는 한 복잡한 이해를 모두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2. 日韓市場構造의 接近과 水平資本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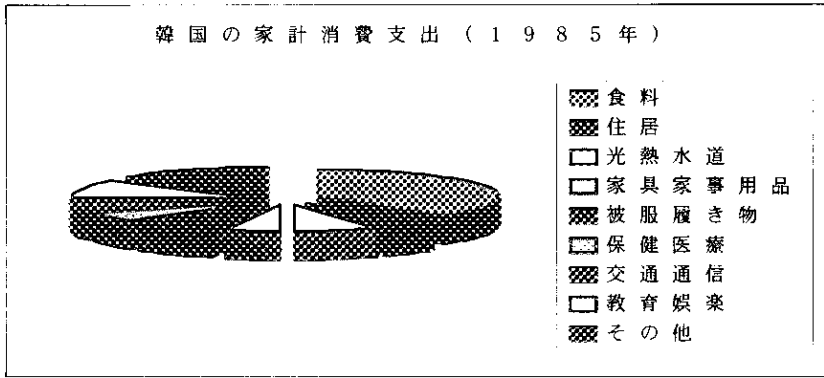
### (1) 일한시장의 접근

여기서 다시 일한의 2국간 관계에 다시 되돌아 가도록 하자. 원래 양국시장 자체도 세계시장의 하나에 불과한 바, 최근의 일한관계를 가일층 수평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소비수준의 전체적 향상과 산업고도로 인한 시장구조의 접근이다. <그림 5>는 한국의 1985년과 1995년, 일본의 1995년의 전가계소비구조를 나타낸 것이지만, 한국은 1985년에는 37.5%나 되었던 엔겔지수가 8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감소되어 1인당 GNP가 만불을 넘은 지금은 일본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29.7%)까지 하락하여, 대신에 교통통신비 및 교육오락비가 현저하게 늘었다. 현재는 가구·가시용품 등과 피복·신발의 합계항목이 일본에서는 10%를 하회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은 아직 12.7%로 약간 높게 나타나 있어, 물건에 대한 소비웨어는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일한의 가계소비구조는 비슷한 구조가 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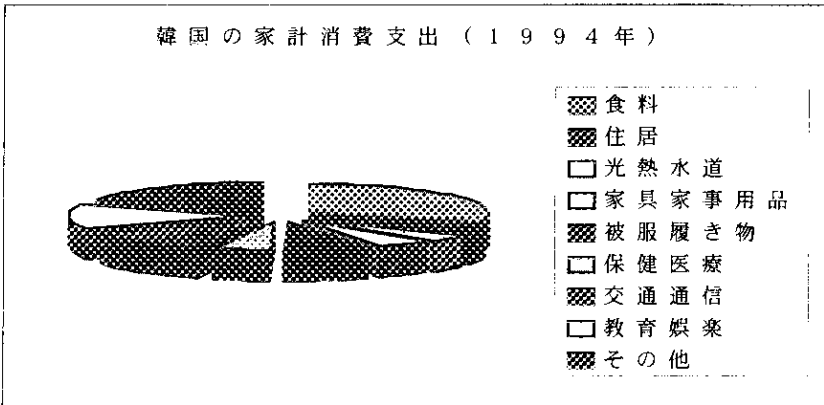
한편, 산업부문은 80년대 후반부터 조립가공산업의 급성장이 소재산업으로 파급되어, 합성재료나 고급수지 등 석유화학이 반도체와 더불어 설비투자를 주도해 왔다. 노동쟁의를 통한 급속한 임금상승이 소비의 수준 향상으로 연결된 한편, 기업은 자본집약형산업으로 방향을 잡아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용부문의 수요에 있어서도 민생용부문에 있어서도 일한의 수요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만큼 접근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OECD가입을 계기로 일한의 규제완화가 진전되어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시장으로서의 일 제감은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그림 5〉 한국·일본의 가계소비 지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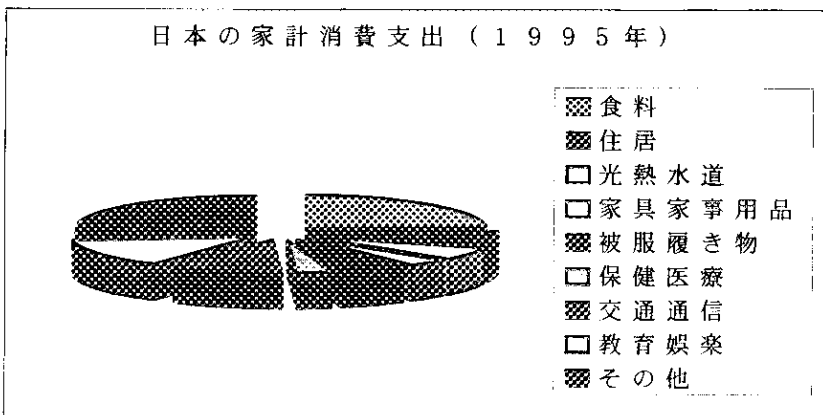
한국의 가계소비지출(1985년)



한국의 가계소비지출(1994년)



일본의 가계소비지출(1995년)



## (2) 수평자본이동의 증대

양국의 수요가 접근되는 한편, 급속한 임금상승의 결과 일본기업에게 있어서 생산거점으로서의 한국의 매력은 급속히 희박해졌다. 1986년의 엔고 직후,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투자는 '88년경까지는 증가되었지만, '89년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에 차지하는 한국의 비율은 '94년도의 경우 1.0%에 불과했으며, 아시아 제4위의 투자대상국이었던 90년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게 추월당하여 7위까지 전락했다. 일본수출입은행이 실시한 해외투자 앙케이트(회답수 422개사)에서도 95년도 조사(1995년 8~10월에 실시)에서는 한국은 「중기적으로 유망한 투자대상국(3년정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대상국(10년정도)」로 각각 11위, 15위에 머물었으며, 영국·미국이나 대만에게 추월당하게 되었다.

투자감퇴의 이유는, 1) 일본국내의 공장폐쇄등 생산조정을 수반하는 생산이관형 투자는 ASEAN으로, 2) 국내시장 개척과 노동집약형 공정이관은 중국으로, 3) 신규시장 개척형 투자는 인도차이나로부터 인도로, 4) 글로벌 비즈니스의 서포트기능은 각 주요 생산거점을 뒤받침하는 홍콩·대만과 싱가포르 등등 일본기업의 투자대상이 자세하게 나누어져서 분업체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막연한 위치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지역 개유의 산업·기업이 충분히 성장된 한국에 대해서는 ASEAN처럼 제조의 대형외국투자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상술한 수출입은행의 앙케이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자기업의 대일수출비율(현지법인의 대일매상고/총매상고)이 94년도 실적인 12.5%로부터 '98년도 예정으로는 15.5%로 착실히 상승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투자감퇴가 계속되는 것은 일본계기업의 기업내무역에 의한 대일수출 네트워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대일수출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임금코스트면에서의 기대가 희박해진 오늘날, 한국의 강점은 일정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파트너의 존재와, 앞에서 언급한 일한시장의 근접성이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94년 이후 금액면으로 약간 부활해 가고 있지만, 그 중심은 실제로는 반도체부품·제조장치나 특수화학품등 시장으로서의 반도체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결과, 또는 서비스업등 소비변화에 대응한 결과였다. 기술이나 노하우의 측면에



서 아직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에 관한 투자는 이제 저임금을 기대하는 對途上國형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특성이나 수요요인에 따라서 자본이 이동하는 수평적인 선진국형 투자로 변화해 가고 있다.

수평화로 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좌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에 더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대일투자도 증대하여 투자가 쌍방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90년대가 되면서 12억불대로 늘어 '94년에는 23.5억달러, '95년에는 1~8월기로 이미 18.3억달러로 증가경향에 있으며, 그 중 94년에는 7000만달러, 95년 1~10월로 1억 2000만달러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는 '94, '95년 모두 4억불대로 추이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투자가 그 3할수준까지는 달하게 되었다.

〈그림 6〉 최근의 일한기업의 움직임

한국의 대일투자

三星生命保險	자산운영을 위해 일본법인을 설치
大宇重工業	新하닉스 매수, 건설기계시장에 진입
浦項製鐵所	福岡의 철강가공메이커를 매수
LG電子	LCD개발회사를 알프스전기와 합작으로 설립
三星航空産業	유니온광학을 매수, 공업용현미경기술의 획득을 지향
起亞産業	기술연구소를 개설
現代自動車	기술연구소를 개설

일한제휴

三星電子	東芝와 반도체제휴 확대(HDTV용 IC기술을 도입, 플래쉬메모리 공동개발)
三星電子	NEC와의 제휴확대, NEC생산의 DRAM을 삼성의 포르투갈공장이 조달
三星電子	富士通과 LCD기술로 클로스라이센스 계약
現代電子	富士通과 64MDRAM에 관해 제휴·분업
韓國電子	東芝로부터 개별반도체를 OEM조달

제3국협력

浦項製鐵	태국의 냉연강판 합작으로 新日鐵, 川崎製鐵과 함께 참여
코데코	인도네시아·인도시멘트에 대해 丸紅과 공동출자
京紡	丸紅과 공동으로 인도에서 면방직사업
LG通運	三菱상사, 홍콩기업과 중국에 물류센터 건설
LG電子	日立제작소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 반도체생산

대일투자의 내용을 보면, 아직 제조업은 적지만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획득을 지향한 연구개발거점의 설치(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포항제철소등), 판매거점(쌍용자동차등), 그리고 기존기업의 매수(포항제철에 의한 가공메이커, 삼성전자에 의한 락스, 유니온광학등)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초기에 이러한 투자패턴으로 시작된 대미투자는 현재 15억달러에 이르는 반도체투자처럼 완전한 시장입지형 투자로 발전되어 온 것이며, 일본에 관해서 그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포항제철에 의한 가공메이커의 매수, 대우에 의한 新하닉스의 매수 등은 모두 기술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판매촉진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러한 직접투자에 의한 수출대체효과는 아직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미일관계와 마찬가지로 통관통계만으로 2국간의 경제관계를 논의할 수 없는 시대가 일한간에도 도래해 오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3) 글로벌화와 전략적 제휴

「누적 대일적자」등 여전히 한국측에 남아 있는 의논의 바탕에는 뿌리깊은 대일종속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글로벌화로 인해 제삼국을 포함시켜서 일한의 경제관계는 긴밀화되고 동시에 2국간은 수평화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가일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대기업간에서 볼 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년 '93년의 앤고 이후, 한국의 재벌계 대기업을 주체로하여 경쟁력이 회복되는 반면에 장기화된 경기정체로 일본기업에는 피해가 눈에 띄며 리스트럭처링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기업과는 코스트로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전략적 제휴」에 의해서 그 활력을 자체의 세계전략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가격협조에 의한 수익향상이나 제휴에 의한 기술력확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의 자금력과 함께 대일수입규제 완화로 개방될 한국시장의 잠재성이 일본기업에 대한 교섭재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기업측도 이를 인정해 가고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측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일수출의 대만을 차지하는 공업제품에 관해서는 일본의 행정적 규제는 적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메이커의 가격·물류지배력이 강하고 독특한 장기적 상거래의 관행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관련된 메이커를 무시한 경쟁은 쉽지 않다. 일한의 경우 특히

복잡한 것은 투자교류가 적은 반면에 기술면에서의 관계가 깊고 특히 재벌계의 기술도입 대상은 다기에 걸쳐서 얹혀 있다는 점이다. 경합성이 있는 메이커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인사이더로서 일본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등과 비교해서 재검토를 쉽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목적이 분명한 협력의 형태가 기대된다. 더구나 이러한 선호는 과거의 대한투자에서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철수를 강요받게 되었다. 적지 않은 일본의 대기업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2가지 이유로 근년에 와서는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 상호간의 전략적 제휴가 진전되고 있으며, 일한무역도 종전의 투자교류로부터 한발 전진한 대기업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예컨대, 가전제품과 반도체를 보면, 양자는 모두 일한이 세계의 주도적 공급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아직 경합관계가 강하며, 일한간에는 OEM공급 정도의 관계밖에 없다. 반면, DRAM반도체에 관해서는 한국이 세계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한의 주요기업은 공동기술개발이나 제삼국을 포함한 판매협력, 생산협정, 수평방향의 OEM계약등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시킨 전략적 제휴가 체결되기에 이르고 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한국의 캐치·업이 빨랐고, 또한 가격유지와 기술면에서 방대한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공통된 목적이 일찍부터 부상되었다. 그 결과로서, 가전에 있어서는 일본기업의 ASEAN조달 강화로 한국이 고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 日電・東芝, LG전자 - 日立, 현대전자 - 富士通 등 주요기업간의 리그가 만들어진 DRAM반도체의 대일수출에 있어서는 경합자가 없다. 수출은 순조롭게 추이하여 결국은 일본 이외의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의 지위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태평양시장도 염두에 둔 삼성 - 日産 자동차도 전략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일한의 양시장도 세계시장의 일부로서 분업구상을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략적」제휴에 의한 쌍방의 잇점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다.

〈표 4〉 일한의 전략제휴의 잇점

일 본 기 업	한 국 기 업
* 기술·규격전략에 있어서의 한국기업 동참	* 기술확보
* 한국시장에 대한 침투	* 다변화품목 해제를 선취한 수익확보
* 가격질서 유지	* 제삼국시장의 획득
* 기업내조달의 보완·유연한 상품라인 전개	* 대일수출의 안정적 확보

### 3. 現實이 나타내 주는 政策的 合意

지금까지 언급해 온 현실은 모두 일한산업이 급속히 글로벌화됨으로 인해 일한 무역의 숫자와 한국산업을 둘러싸는 의논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되는 시대의 도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대일비판은 대일수입초과의 확대 · 무역적자 · 경상수지 적자란 흐름에 근거한 것이 많지만, 대일무역이 수입초과가 되더라도 기업이 최신설비나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익을 확보해 나간다고 시장이 판단하게 된다면 한국기업에 대한 자금의 흐름은 계속된다. 일한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단순한 무역균형의 개선보다는 투자교류의 확대나 전략적 제휴의 원활화를 포함한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협력의 진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일한경제관계의 주역은 이제는 민간기업이며, 예컨대 다음에 언급하듯이 정부의 역할은 필연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동시에 간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업계간의 대화기회의 활용 · 촉진 : 일한업계에는 이미 충분한 대화의 장이 있으며(조선, 석화, 시멘트, 전자, 자동차에 관해서는 업계조합 베이스, 컴퓨터 · 반도체 등에 관해서는 대기업 베이스), 상호신뢰의 강화를 위해서는 빈번한 정보교환이 가장 유효적일 것이다.

(2) 미국상공회의소등 재일외국기업조직과의 연계강화(예컨대, 외국계 반도체의 셰어를 약속한 미일반도체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얻은 자는 한국이다. 일본측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3) 한국기업의 시장조사능력 강화 : 한국기업은 수많은 주재원을 파견해 있지만 일본기업의 재외거점이 실시하는 시장조사의 밀도나 정보수집력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다. 한국기업 독자적인 조사에 집착하지 말고, 일본의 시장조사회사나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국내조세 인센티브 강화등

(4) 한국계 금융기관의 활동강화 : 일본기업과 비교하여 신뢰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코스트가 높다는 등 불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크다. 재벌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판매촉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第 2 分科會 自由討論〉

(産業協力分野)

## 自 由 討 論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자유토론시 코디네이터로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카가와(深川)씨의 페이퍼 속에서도 많은 질문 사항이 있고 유관영 박사님 페이퍼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후카가와(深川)씨의 말씀 속에는 한일 소비시장의 일체화, 외국자본의 매수 허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이런 경합과 경쟁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 되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질문대상이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柳寬榮 박사의 논문 속에서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국제 조화형 산업구조가 실현되고 내수 주도형 성장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 양국간에 속마음을 털어 놓는 논의가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아니라 지금보면 구조조정 촉진에 필요한 협력, 구조조정 결과 방출되는 자원을 상호 활용하는 협력, 틈새분야의 발굴, 기존 협력사업의 구체화, 그리고 자본재 산업분야의 협력이나 고용창출형 신산업분야의 협력, 이런 문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토론이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후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가능하면 좀더 포커스를 좁혀서 질문해 주신다면 이 토론의 성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지마(大慈彌)씨에게 넘기겠습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지금부터는 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페이퍼발표를 들으신 후 여러 가지 의견을 갖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페이퍼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감상, 또 다른 의견 제시도 무방합니다. 활발한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도시바의 와따리(渡里)씨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渡里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도시바의 와따리(渡里)입니다. 미리 받은 백그라운드 페이퍼를 읽고, 또 오늘 발표를 듣고 IMF체제하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감안한 시사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분의 발표의 공통된 부분중 하나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간의 관계만을 거론하면 뜻이 없다, 아시아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가운데서 일한관계가 과거에 없었던 현역관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기에 와있고, 또 세 번째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수평적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서 대기업간에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제휴가 주목된다는 것, 네 번째로 한국의 일본 지출로서 판매거점이나 연구소 거점에 더하여 일본측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에 투자가 눈에 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후카가와(深川) 선생님은 10년전, 1988년에 와타나베 도시오 교수와 공저로 「5년후의 한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5년전에 지적하신 건이 많이 실현된 것을 알았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앞으로의 일한관계에 굉장히 시사를 주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분에게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카가와(深川) 선생님께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서 일본의 고령화가 앞으로의 일본과 한국의 구조조정에서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柳寛榮 소장님에 대한 질문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요소부품이나 생산설비의 수출이 아시아국가들과 일본의 무역불균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과 아시아 국가간의 마찰은 한층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는데 설비와 요소부품을 수출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조립산업의 확대, 또 그로 인한 고용의 확대, 또 기술이전이 실현되며, 그 위에서 요소부품의 현지생산의 가능성이 나와서 안내형 발전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위한 과도적인 단계로서 생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柳寛榮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후카가와(深川) 선생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深川由起子 靑山學院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고령화라는 요소를 말씀드린 것은 첫째 한국의 앞으로의 기술선택, 주요산업의 기술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일본에 가까운 풀세트형 산업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공작, 산업기계와 같은 상당히 숙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산업이 취약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일본이 고령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반산업에 많은 부분을 해외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측에서 본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녀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숙련산업과 같은 노동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벤처산업과 같은 HIGH-TECH 산업쪽으로 한국이 이행한다고 하면 고령화해 가는 가운데서 일본의 선택은 역시 HIGH-TECH 산업,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한일관계는 또다른 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부문에서 일본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산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柳 寛 榮 産業研究院 日本研究센터 所長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생산설비, 요소부품 등 자본재를 수출해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에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자본재 수출이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일무역불균형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까지의 중화학공업과 성장전략이 한국의 압축형성장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어셈블리메이커와 하청메이커간에 충분한 상호연관관계, 즉 효율적인 분업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을 보면 역시 한국측에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투자자의 실체를 업종별로 본다면 일반기계, 공작기계와 같은 산업기계부문, SUPPORT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다른 전자, 섬유부품 등의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제품분야에 비해서 핵심부품, 생산설비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의 대한투자, 기술이전의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며 앞으로 한일간 산업내 수평분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일본과의 산업내 분업이 효율적으로 확대되려면 앞으로 일본의 SUPPORT 산업분야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 등과 앞으로의 한일간 수평분업 확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형태의 메카니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본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되어가는 아시아적인 발전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주도되고 있고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대아시아의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아시아의 분업네트워크를 확정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화교자본이 등장해서 이제까지의 형태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또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붕괴위험 마저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주도해 왔던 발전메카니즘을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원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아시아의 성장을 회복시키는데 직결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유 박사님 수평으로 가려면 일본이 협력을 해 주는게 좋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발표도 좋습니다. 일본측에서 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먼저 손을 드신 분이 서울이동통신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朴源弘 선생님이지군요. 朴源弘 선생님도 과거에 한국방송공사에서 심야토론을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이동통신의 박원홍입니다.

최근까지 2년반동안 KBS에서 심야토론 사회자를 지냈습니다. 김규칠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비롯해서 심야토론 사회자들이 아마 이 회의에 기여를 해야 하는가 봅니다. 니이가타 회의에도 2년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의는 더더구나 아주 중요한 때에 열리는 뜻있는 회의인 것 같고 미야자키는 태양과 미도리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씨미트를 반드시 유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당사자들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후카가와 유끼코(深川由起子) 선생하고 柳寛榮 선생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후카가와(深川) 선생님께 하겠습니다. 일본의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택시를 타고 시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운전수가 자기 생애에서 전후 최악의 불경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다, 장기화가 걱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니까 일본의 장기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엔화가 쌓이고 수출이 증가하면 미국이나 EU 등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 쌓게 되고, 또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경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88년에 있어서 보수파 정객인 이시하라 신타로씨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2탄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신대동아경제 공영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음모설이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연 자원이 없는 섬나라로서의 한계를 알고 있는지,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 아래에서 엘리트 국민의 의식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 일반국민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을 믿을 수 있는지 이점에 관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한국과 일본간의 산업협력, 세계경제의 장래가 일본의 구조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실 것인지, 과연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의 구조조정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트리플 약세(엔화 약세 등)에 한국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조정이 잘 안된다는 예상으로 트리플 약세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위기의 공포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여러분들에게 신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본의 구조조정이란 것은 개인적으로 먼저 일본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는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본 경제는 상당히 큰 규모이므로 큰 배가 침몰될 때 순식간에 침몰되는 것이 아닌만큼 침몰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무원이 되는 국민들의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거처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이 일본의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택시운전기사처럼 이제는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일본이라는 큰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방향을 잡지 못하여 세계경제에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일본의 불황이 세계공황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중남미에서 실패를 해서 부실채권이 많을 때 도와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융불안, 아시아에 대한 부실채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공황의 계기가 될지 모르니까 일본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조가 나오자 미국은 도와줄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면 그러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리더십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조차 없고, 힘을 갖고 있어야 할 민간기업도 현재는 내부적인 대응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한국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구조조정을 먼저 해서 일본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지지 않으려는 감정이 있는데 한국의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일본도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일본측의 의견, 코멘트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浜直敏 旭化成工業(株) 常務理事

저는 아사히카세이공업에서 한국의 메이커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柳寛榮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한국은 지금 투자문화를 개방하고 구조조정을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임금 구조가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제국이 제공하기 어려운 경영자원이 한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영자원의 예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柳 寛 榮 産業研究院 日本研究センタ 所長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한국을 저임금의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일본기업의 진출방법은 이제는 동남아라든가 중국 등의 생산기지의 활용으로서 한국은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어졌다 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들이 갖고 있지 못한 차별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예컨대 기술수준, 교육수준, 기업의 경영 노하우라는 면에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나 중국보다는 경제개발 역사가 길고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력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력이나 동남아 기업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절약적 제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절약적 제휴와 같은 기업간의 제휴라는게 어느 정도 파트너간에 대등하지 못하면은 기업간 절약적 제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기업들과 일본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약적 제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기업들이 가진 경영 노하우, 기술수준의 면에서 아시아나 중국등 개발도상국 보다는 우위에 있으며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결합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한일간의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러면 한국측으로부터 말씀해 주시죠.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사전 규칙에 의해 다시 한국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멀리계신 먼저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秋浩錫 대우중공업 사장님 계십니까?

秋 浩 錫 大宇重工業(株) 社長

대우중공업의 秋浩錫 입니다. 앞서 두분의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한일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교류 확대 및 절약적 제후가 무역역조현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글로벌 소생,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한일간의 산업협력 전체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기계산업에 대해서만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주제넘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한국의 기업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저희 창원공장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겨울의 난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자고 제의했는데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겨울에 난방없이 조업을 하였고, 항공사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들도 동참을 하겠다고 두터운 속옷과 외투를 입고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저로서는 조그만 변화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조정하려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구마, 서구에서 오는 대기업체들을 만나보면 현재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남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겪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외국인의 한국의 경제활동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코스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화회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접근방식이 개방화·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 또는 절약적 제휴 움직임이 유럽, 미주국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이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대우중공업은 70년대 후반부터 많은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부임해 보니 일부 부품공예·단순기술을 제외하고는 일본 기업간의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수한 일본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일본을 자주 다니면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개방화 등으로 협력관계의 과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미국·유럽기업들에 대해 일본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일본경제가 금융위기와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일본은 이를 빠른 시일내에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절약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유용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본 기업과 접촉하면서 발견한 점과 요즘 접촉하는 미국·유럽 회사의 자세에 대해서 참고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전부터 일본기업을 접촉해 보니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후는 저보다는 일본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휴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IMF 이후 최근 일본의 저회 파트너될 회사를 만나니까 일본사정이 좀 어려워니 대규모 투자를 할 그런 여력이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구라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편지로 저회 회사의 주요 사업중에 한 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느냐, 미국에 있는 회사중 그 업종이 세계 제 1위의 회사인 사장이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인수를 문의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일정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파트너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대북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시장을 포함한 한국시장을 볼 때 한국·일본 시장의 근접성으로 공동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기업간 개별협력부분이 아

나라 지역적으로 가까운 양국이 동종 산업간의 상품·부품·기술 등에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공동성장을 촉진케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시대의 동아시아 경제권 번영을 위해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카가와(深川)씨에게 한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이제 단일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업종에 몇 개의 제한된 기업이 생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망이며 이것은 본사에 협력을 제의한 구미기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일본기업이 몇 개의 제한된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일본에 도움이 될만한 한국파트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면은 조선·건설기계·공작기계는 이미 한국과 일본기업체가 세계의 TOP수준입니다. 특히 일본 공작기계의 어느 사장님은 공작기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제품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만이 남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까 말씀하신 후카가와(深川)씨의 설명에 대해 저는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네,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카가와(深川)씨가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深川由起子 青山學院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측의 기대라는 것은 우리처럼 한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관계는 미국이나 유럽기업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은 동아시아에 갖고 있는 거점이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인센티브는 많을 것이며 일본기업은 엔고 이후 10년에 걸쳐서 아시아·중국에 생산거점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진출해야 할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솔직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처럼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시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구미와 비교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한 투자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일본의 인식으로서는 금후 한국의 성장산업이 무엇인지 잘 알수 없다는 것도 투자 부진 요인입니다.

구미기업의 생각은 장기적이지 않으며 잘 되지 않으면 다시 판다는 유연성이 있지만, 일본 기업은 한번 투자시에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힘든 일에도 그 거점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세가 있어 결심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역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논보다는 협력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시장원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주는 조건이 명백해 지고 공작기계에 있어서 한국진출이 상당히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본은 한국에 진출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럼 그 다음에 일본측 발언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요지마(豊島)씨!

豊島 格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두분께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는 점도 있었습시다만 몰랐던 점도 많았고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이고, 감명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카가와(深川) 선생님께 여쭙 보고 싶은데요. 일본의 생각은 STEREO형의 생각으로 한국경제가 호전되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가 들어가고 한국의 대일적자가 늘어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일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적자 자체가 증가할뿐 아니라 한국의 적자의 대부분이 일본이라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한국이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흑자이거나 전체적으로 흑자였다면 대일적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이 나빠

지면 일본도 나빠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으며 따라서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공작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자동차 부품들도 상당히 많이 구상화 되고 조달률이 9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전형적인 공작기계 등도 포함되리라고 생각되고, 또한 부메랑 효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도 특수한 것 이외에는 제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본이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다른 제품처럼 기술을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 하고는 양상이 틀리다고 봅니다. 투자할 이점을 어디에서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다는 것 보다는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체제가 잘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작기계라는 것은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키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좋은 기계를 많이 수입을 해서 일본의 기계산업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공작기계산업을 키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만 한국의 설비산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카가와(深川)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point to point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도 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현·시·지방의 산업그룹을 가지고 local to local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매도시가 아니라 산업협력을 지방간에서 결부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IGH-TECH에서는 미국, 섬유·패션은 이태리, 폐기물에서는 독일 등의 여러나라가 한국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한국이 히로시마현에 자동차 부품공업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어떤 사례가 있으며 어떤 분야가 우수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위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찾고 PR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 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럼 먼저 후카가와(深川)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 여러사람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민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유 선생님의 폐이퍼에도 나왔습니다만, 양국의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의 선택이라는 것이 적어도 일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서로 명백히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대 산업의 구체적인 차원의 조사에 서로가 같이 하는 등을 통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공작기계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독일에 있어서 공작기계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산화 하고 있고 미국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생산을 이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체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으로부터 기술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한국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불안요소로는 공작기계의 금형, 열처리 등의 SUPPORT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일본은 수출지원을 하지만 한국에 수출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감정의 경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제 3국에서의 수요를 늘리고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장개방은 정부가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말하면 세계 표준규격을 만드는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도 시장을 개방하고 한국도 4,300만 시장을 개방하여 세계시장을 손에 넣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柳寬榮 박사님, point to point의 어떤 사례, 어떤 부분에 일본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죠.

柳 寛 榮 産業研究院 日本研究センタ 所長

point to point와 local to local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금 JETRO의 경우 미국·독일등 선진국 중심으로 작년부터 local to local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본의 각 지방에 기술축적이 되어 있고 지방산업인 중소기업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기술과 일본의 지장(地場)기술을 결합시켜 선진기업을 일본에 유치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일 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지방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입니다.

'93년부터 큐슈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의 지방특화산업과 한국의 지방특화산업이 연계하는 local to local 사업은 없으며, 다만 일본이 선진국을 상대로 하는 local to local 사업을 한일 관계에서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공적채널을 만들어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한국지방과 일본지방간의 무역·기술교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지방산업이 취약하므로 선행 단계에서 기반구축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시·도·현과의 자매결연이 약 50여개정도 되는데 이를 계기로 산업기술 교류사업(일본의 OB 기술자, 한일기획 등)을 하여 일본기업이 한국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시나리오 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는 공적채널 구축, 인적교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자동차부품을 말씀하셨는데 北九州의 NISSAN과 부산의 삼성자동차 부품분야의 지방간 협력이라든가 등이 있으며, 또한 큐슈의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여 큐슈시가 한국의 전라남도, 경기도 이천 등 도자기산업분야의 제휴와 섬유분야는 염색이나 디자인 부분이 한국보다 일본이 발달했으므로 한국의 대구와 일본 호쿠티구(北陸) 지방과의 제휴로 일본의 염색·디자인 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네, 토론은 막바지로 갈수록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이라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국

측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이 한화JAPAN의 金正 사장님과 대영산업개발의 金德吉 회장이 계신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시고 질문을 계속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金正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金 正 HANWHA JAPAN CO., LTD. 社長

간단히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일본의 역할이나 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IMF 시대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투자개방을 하고 국민정서도 해외투자자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기침체와 과거의 실패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여건 개혁방안은 한국이 다시 개국한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이고 일본은 과거의 연장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지정학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유수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해서 선점할 경우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감소되거나 없을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따라서 경영정책상 한국투자를 재검토 해 주시고 한국투자자로 한일 양국이 협력한다면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권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네, 金正 사장님께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지미(大慈彌)씨에게 넘기겠습니다.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네, 그럼 일본측 발언을 해주십시오.

吉井 毅 新日本製鐵(株) 代表取締役副社長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철강을 제조·판매를 하는 관점에서 철·쇠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일

한관계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관계를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고, 이번 환율위기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은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유화가 좋다는 것인데 자유화와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는 계속 존재하여야 하며 적대적 M&A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자유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칠·쇠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질·양에 있어서 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양국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됩니다. 양국이 철강 분야에서 자유화와 질서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이 발전해야 하며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공동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손해입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우리는 태국에서 한국의 포스코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정부는 자유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유화와 질서는 마이크로와 마이크로의 조정이며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深川由起子 靑山學院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질서라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환율위기 등에서 일본이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에 요구해 온 자유화 요구로 인해 금융위기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화는 좋으나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자유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자유화는 좋지만 완전자유화는 강자의 생존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철분야에서 양국은 2대 파워가 되어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후발국을 포함해 책임을 공유한다는데는 동감입니다. 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柳 寛 榮 産業研究院 日本研究センタ 所長

IMF 이전에는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러시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IBM, 런던의 삼성이 어느쪽이 국익을 주는가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기업과 외국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이 어느쪽이 일본경제

에 플러스가 되는지 라는 질문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개방, 개혁의 자유화에  
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국가  
의 이익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자유화와 질서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대영산업개발의 金德吉 회장님, 질  
문과 대답을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일본측에도 발언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  
입니다.

金 德 吉 大永産業開發(株) 社長

한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쟁산업에 대해  
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 등에서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오늘 분과회에 금융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동  
문제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본인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한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외국자본을 어떻게 도입하면 되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고,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한국에 피와 살이 되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되길 바  
라는게 제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논이 전개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金 圭 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金德吉 회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찬회 시간 등의 다른 기회에 논의하겠습니다.  
다. 오지미(大慈彌)씨, 받아 주시죠.

大慈彌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하여 요약해 해 보면 현재  
일한 양국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글로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쟁  
과 협조에서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일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한 무역불균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기술이전과 자본  
투자에서 Support industry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양국간의 key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의논을 기초로 오후에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金圭七 선생님, 정리해 주시죠.

金圭七 韓國側 코디네이터

오지미(大慈彌) 선생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두 분의 기초는 글로벌화와 제 3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협력가능 분야에의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중점분야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후카가와(深川) 선생님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원인이 한국의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오늘날 무역은 자본공유가 주도하며 일본의 해외투자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한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 박사님은 이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일 양국의 수평분업을 위해 일본의 재계등 지도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IMF 구제금융의 시대이므로 양국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일본의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양측의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회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合 同 分 科 會

(交流增進分野, 其他)

〈共同議長〉

韓國側：金 在 哲 東遠GROUP 會長

日本側：渡里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韓國經濟의 現況 및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楊 秀 吉

### I. 韓國 經濟의 狀況診斷

#### 1. 韓國 經濟의 現況

- 한국 경제는 그 동안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과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가 착실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外債滿期 延長協商이 원만하게 끝나고 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외환시장의 위기상황은 고비를 넘긴 상태임.
- 그러나 금융기관의 消極的 資金運用과 緊縮的인 通貨·財政政策 등으로 實物景氣의 沈滯가 확대되어 산업기반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음.
  - 회사채 金利를 보면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換率이 1,300~1,400원 내외에서 머무는 등 아직도 不安定한 모습
  - 內需의 萎縮으로 産業活動이 위축되고, 失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物價도 여전히 높은 수준



〈表 1〉 金利와 換率의 推移

	'97. 11말	12말	'98. 1말	2말	3말	4.8
물금리(1일, %)	12.1	30.1	25.9	23.3	22.2	21.9
회사채수익율(3년, %)	15.1	29.0	18.5	20.5	18.3	18.5
환율(₩/\$, 기준환율)	1,164	1,415	1,573	1,640	1,379	1,443

- \* 산업생산 : (98. 12) 2.4% → (98. 1) -10.3% → (98. 2) -1.9%
- \* 실업률(실업자) : (98. 1) 4.5%(93만명) → (98. 2) 5.9%(124만명)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 : (98. 1) 8.3% → (98. 2) 9.5% → (98. 3) 9.0%

- 日本의 장기불황과 금융부실화, 中國의 금융불안, 東南亞 외환위기의 지속 등으로 對外與件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 2. 經濟危機의 原因診斷

□ 經濟危機의 根本原因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의 量的 成長의 타성에 젖어 선진국에 비해 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의 발전에 크게 뒤쳐졌기 때문임.

- 市場規律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주체간 道德的 解弛(moral hazard)가 심화되었고,
- 경제 각부문에서 高費用·低效率 현상이 만연되어 한국 경제의 競爭力이 크게 弱화됨.

□ 정보화·글로벌경제의 시대를 맞아 열린 마음으로 國際的 基準 (global standard)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함.

- 기업은 규모 키우기에 열중한 나머지 財務構造 改善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生産性 提高 努力이 미흡했음.

- 사회가 민주화·다양화되었음에도 勞使政이 自律과 參與속에 합의점을 찾고 창조적인 知識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함.

## II.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 이러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건실한 경제체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4가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첫째, 外換·金融市場의 안정 등 당면한 緊急懸案의 조속한 해결

- 對外信認度 提高를 통한 외환유동성 확보로 外換市場 安定 달성
- 金利의 下向安定과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복원
- 고물가·고실업 등 民生不安要因 해소

둘째, 金融改革, 企業構造調整 및 勞動市場 改革의 차질없는 추진

- 國際的 基準에 부합한 구조개혁의 추진
- 노·사·정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柔軟性 제고

셋째, 지속적인 經濟發展基盤의 構築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

- 인력 및 기술개발, 정보통신 및 社會間接資本投資 등을 통해 産業競爭力의 基盤을 조성
-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활성화할 수 있는 透明하고 豫測可能한 투자환경의 조성

넷째,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各 經濟主體들의 意識과 行動樣式의 전환 유도

- 構造調整과정에서 고통분담의 不可避性의 인식과 경제주체간의 새로운 關係定立을 통해 經濟의 安定과 發展을 도모

### Ⅲ. 經濟安定을 위한 政策推進

#### 1. 外換市場의 早期安定

- ☐ 지난해 11월 外換流動性이 크게 부족하여 심각한 危機국면에 처했던 한국 경제는 금년들어 外換事情이 점차 改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表 2〉 可用外換保有高의 推移

(단위 : 억달러)

	'97. 11월	12월	'98. 1월	2월	3월
가용외환보유고	72.6	88.7	123.6	185.4	241.5

- 외국인의 주식·채권투자 허용 폭을 확대하는 등 資本自由化를 지속적으로 추진

\* 주식시장 개방 확대(97.12) : 종목당 55%, 개인당 50%

\* 채권시장 완전 개방(97.12)

- ☐ 최근 外換需給與件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不安要因 상존

- 日本 金融機關 부실 및 엔화 약세,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외환위기 장기화 등 國際金融市場 不安 가중

- 대내적으로도 기업경쟁력 저하, 현지 금융 등 기업외채문제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保有外換을 가급적 早期에 최대한 擴充토록 노력

- 外貨表示 國債發行에 이어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 일반은행의 credit line 확대, 企業의 海外借入의 개시 등을 추진하여 年末 可用外換保有高 목표 400억달러를 조기에 달성

## 2. 企業資金難 해소를 위한 金融市場 安定

□ 최근 金融市場은 高金利 持續과 通貨의 긴축운용, 金融機關의 자금공급 제약, 外換供給 부족 등과 함께 換率上昇에 따른 運轉資金 등 기업의 금융수요 확대, 대기업의 자금비축 등으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

□ 한국 정부는 金利引下 및 企業資金難 解消를 위해 노력 지속

- 외환시장 안정시 金利를 引下하기로 IMF와 합의(98. 2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IMF와 합의한 목표범위내에서 通貨供給을 伸縮적으로 운영
- 不實企業은 과감히 정리하되 流動性 不足을 겪는(illiquid) 優良企業과 건실한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資金供給 擴大 추진

## 3. 失業對策의 차질없는 추진

□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失業者가 1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表 3〉 失業者數의 推移

	'96	'97. 10	'97. 11	'97. 12	'98. 1	'98. 2
실업자수(만명, 기간평균) (실업률: %)	43 (2.0)	45 (2.1)	57 (2.6)	66 (3.1)	93 (4.5)	124 (5.9)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실업의 발생을 예방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綜合的인 失業對策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이러한 失業對策 推進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에 의한 5조 원 외에 공무원 봉급 삭감 등을 통한 추경예산재원 1조 1천억원 등 총 7조 9천억 원의 財源을 마련

## IV. 市場機能定着을 위한 構造改革

### 1. 金融産業 構造調整

#### ☐ 不實金融機關의 構造調整 추진

-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감자, 정부출자(3조원) 및 民營化 추진(98. 11까지)
- BIS 비율 8% 미달 14개 은행에 금년 4월말까지 經營改善計劃 제출 요구
- 16개 綜金社에 대한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및 2개 證券社 업무정지, 1개 投信社 허가취소 등

#### ☐ 금융기관의 不實債權 整理 및 BIS 自己資本比率 제고 지원

- 성업공사에서 不實債權 買入 : 14조원(20조원 추가 예정)
- BIS 自己資本比率 제고를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 : 4.4조원

#### ☐ 金融改革은 役割再調整(reengineering), 構造改編(restructuring), 能力培養(empowerment)의 3大目標의 達成에 중점을 두고 추진

- 役割再調整은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산업정책의 담당자역할에서 商業的 베이스에 의한 營利機關으로 탈바꿈함을 의미
- 構造改編은 금융기관의 健全성과 업무의 效率性を 제고하는 것을 의미
  - 우량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增資 또는 資金調達 원활화 방안을 강구
  - 外國資本 등을 통한 M&A를 활성화시켜 進入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不實金融機關은 과감히 退出되도록 제도를 개선
  - 競爭促進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兼業化를 추진
  - 일관성 있고 透明한 處理計劃을 수립하여 不實債權을 조속히 정리

- 能力培養은 金融機關의 危險管理能力과 금융시스템의 安全性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
  - 信用評價・分析技法의 개발 등을 통한 信用危險管理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운영상의 기간불일치 시정 등을 통해 流動性 危險을 최소화
  - 金融시스템의 安全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通貨信用政策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金融監督機能을 강화하고, 金融기관 經營內容의 公示 확대 등 시장규율에 의한 監視(monitoring)를 강화

## 2. 企業構造改革

□ 企業構造改革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競爭力 提高에 역점을 두고 5大 改革 原則에 따라 과감히 추진

- 企業經營의 透明性：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2000년 → 1999년 사업년도) 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
- 相互債務保證의 禁止：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000. 3월까지 해소
- 健全한 財務構造：30대 기업집단과 주거래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 이상)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을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하는 동시에 유상증자요건을 폐지
- 核心企業의 설정과 中小企業 협력：금융기관 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의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등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
- 支配株主와 경영자의 責任性 확립：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소송권(1% → 0.05%)등 상장기업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 기업의 구조조정은 政府가 直接 개입하여 推進할 사안은 아니므로 金融機關과 企業이 協議하여 추진

☐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外國人에 의한 敵對的 M&A를 許容

- 4월부터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33%까지 許容하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며, 향후 조속한 시일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全面的으로 확대할 계획임.

- 不動産 需要基盤擴充을 통한 關聯稅制의 개편, 외국인의 부동산 取得許容, 부동산 信託制度의 개편 등을 추진

- 기업활동 등에 꼭 필요한 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용 주택 및 기업의 非業務用 土地에 대해서도 內國人과 同一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폐할 예정임.

### 3.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한 경쟁시장질서의 정립

☐ 과거 한국은 外國人 投資를 消極的인 관점에서 보아온 결과,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 直接投資 誘致實績이 低調

- GNP 대비 외국인투자비중(%) : 한국 2.3, 영국 28.5, 말련 52.1, 중국 18.2

☐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 투자는 전반적인 企業構造 改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경쟁체질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韓國 政府는 과감한 개방과 외국환관리법의 전면 개정 등 制度的인 측면에서 대대적인 投資 環境造成에 전력을 다하고, 市場機能을 높이기 위해 勞動市場, 土地制度 등도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임.

- 4월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반기중 立法 추진

☐ 資本移動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外換管理法을 全面 改編해 나갈 것임.

- 자본거래의 기본원칙을 종래 「原則禁止, 例外許容」에서 「原則許容, 例外禁止」로 전환

- 감독체계도 이전의 事前監督體系에서 事後管理體系로 전환

☐ 외국인 투자촉진 방안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租稅 및 賃貸料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

- 高度技術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 실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工團敷地 賃貸料 減免 基準을 대폭 완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規制緩和 示範地域인 「外國人投資 自由地域」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 입법 추진

☐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 및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全過程을 一括 處理할 예정임.

## V. 向後 韓國 經濟의 모습：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동시 달성

☐ 意識과 行動의 轉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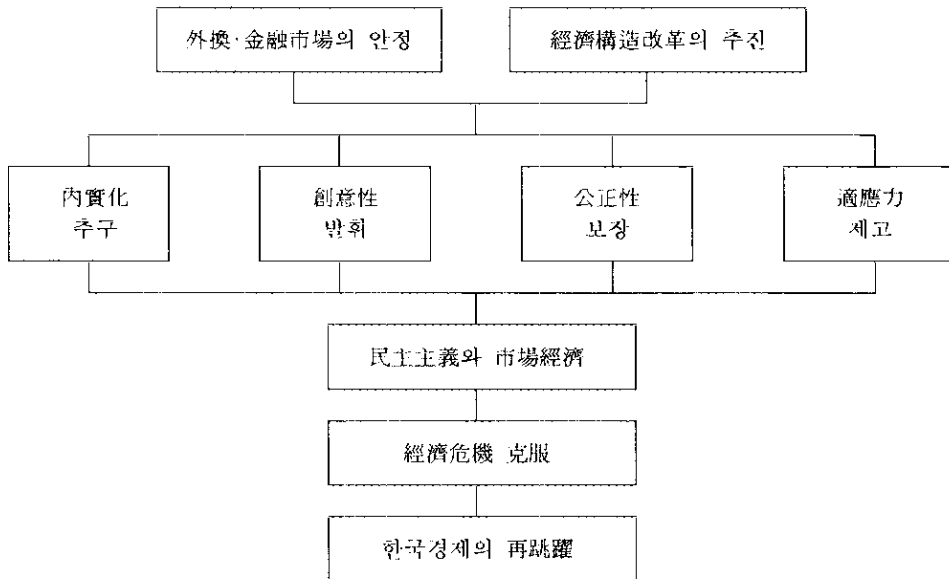
- 內實化 追求：外形成長보다 財務構造 改善, 高附加價值化를 통한 質的 發展 추구
- 創意性 發揮：科學・技術開發 등으로 情報・知識社會化 촉진



- 公正性 保障 : 투명하고 공정한 競爭,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 및 공정한 規則에 의한 社會的 葛藤의 해소
- 適應力 提高 : 경제제도 · 관행을 國際기준에 부합시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競爭 · 協力 力量 배양

#### □ 經濟主體間的 새로운 關係 정립

- 政府는 法 · 制度의 整備 등 市場經濟의 인프라 구축
  -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機能 강화 및 企業에 대한 公正競爭 與件 조성
  - 事前規制는 철폐하고 事後監督은 철저
  - 기준미달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엄격한 구조개선 계획을 준수케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退出되도록 하고 經營者는 책임지는 풍토 조성
- 金融機關은 기업구조개혁의 先導的 役割을 담당
  - 기업의 수익성 · 사업능력에 기초한 貸出審査를 강화하여 자원의 效率의 배분을 도모
  - 급변하는 國際金融環境에 대한 위험성 관리기능 강화
- 企業은 재무구조개선 등 構造調整 努力을 경주
  - 經營革新과 透明한 經營을 하지 않는 기업은 합병 또는 퇴출되는 여건 조성
  - 大企業은 直接金融市場에서 자기신용에 의한 자금조달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中小企業의 간접금융 이용 기회 확대
  - 企業은 건전한 財務構造를 바탕으로 技術開發에 주력



## VI. 向後 經濟展望

□ 98년중 우리 경제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低成長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 17일 IMF와 합의한 경제전망은 成長 1%, 物價 9%, 經常收支 80억 달러 흑자였음.

- 최근 금융시장 및 실물 동향을 고려할 때, KDI의 전망에 따르면 成長은 -0.9%, 물가는 9.4%, 경상수지는 253억달러 흑자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향후 한국 경제는 금융시장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99년부터 回復局面에 진입하고 2000년에는 5%대의 安定成長으로 복귀할 것임.

- 최근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99년 한국경제가 4.1%의 성장을 하여 예상보다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이상과 같은 한국의 改革推進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韓日經濟人會議의 역할 제고 요망

- 1) 韓國의 構造改革의 支持와 支援
- 2) 기업인으로서 日本 政府에 대해서 일본의 內需擴大와 構造調整을 촉진해 줄 것을 요청
- 3) 韓國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投資計劃을 기업인들 세계에 널리 弘報하고, 이를 活用하여 投資를 촉진시키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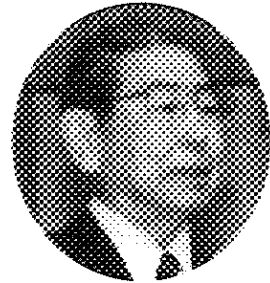
※ 이같은 차원에서의 具體 建議事項

- 次期 會議의 하나의 課題로서 「韓日兩國의 經濟改革과 21世紀의 韓日經濟關係」라는 共同研究를 추진하는 方案을 검토
  - 다시 말해서 이러한 次元의 새롭게 전개되는 지평선에 깔려 있는 새로운 기회들은 分野別로 파악하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100% 活用키 위해서는 兩國의 政府와 企業人들이 어떻게 對應해 가야 하는가 하는 課題를 발굴해야 함.
- 이러한 課題에 대해서 分野別로 企業人들이 모여 相互 共同研究를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양국 기업인 차원의 情報交流와 紐帶強化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韓日間의 새로운 經濟協力 관계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차원의 共同研究 結果를 내년 同會議에서 검토하는 方案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KITA의 國際技術協力에 대하여



(財)北九州國際技術協力協會  
理事長 水野 勲

방금 소개받은 北九州국제기술협력협회 이사장인 水野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협회의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KITA의 연혁)

저희 협회는 北九州國際기술협력협회의 영문표기의 머리글자인 K, I, T, A로 「가이타」란 통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이타는 1980년에 재단법인 北九州국제연수협회로서 발족되었습니다. 발족 동기는, 당시 北九州지역은 에너지소비형 기초소재생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으므로 석유파동의 영향이 심대하여 경제의 기반침하를 초래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北九州청년회의소가 北九州지역에 축적된 공업기술을 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제공헌을 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지역의 경제단체인 北九州상공회의소, 西日本공업俱樂部가 합세하여 福岡縣, 北九州市의 찬동을 얻어 당면은 국제협력사업단(JICA=자이카)의 국제연수를 수탁해서 수행함과 아울러 JICA의 국제연수센터의 유치를 추진함을 목표로 하여 협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1980년에 첫 연수코스를 수탁해서 실시한 후, 1989년에는 JICA九州국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그 후 연수코스도 증가되어 본 연도에는 25가지JICA集團연수코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ITA는 국제연수를 통해서 얻어진 도상국의 공업사정과 北九州지역에 축적된 기술협력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기술협력을 더욱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의 「北九州국제연수협회」로부터 현재의 「北九州국제기술협력협회」로 발전적으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地球)서밋트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제창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기 위해 새로 조직을 강화하여, 연수사업 외에 기술자 파견, 조사연구, 국제회의 개최등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KITA는 민간의 주도 아래 시민의 풀뿌리 운동 속에서 탄생하여 산·학·관·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평가를 받아, KITA 창립후 10년간 사이에, 1990년에는 JICA총재 감사장, 1991년에는 외무대신 표창, 1995년에는 일본,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의 공동사업으로 제1회 일한국제환경상을 수상하는 등 영광을 안게 된 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KITA의 조직)

KITA의 조직에 관해서는 자료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60명의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 중 기업으로부터의 출향자 2명, 北九州市에서의 출향자 7명이 있으며, 각각 파견처의 급여부담으로, 즉 KITA 입장에서 보면 무보수로 나와 계십니다. KITA와 직접적 고용계약이 있는 스태프, 즉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스태프는 사무국의 남성 1명과 여성 4명뿐이며, 이 한정된 스태프로 사무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45명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 행정,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 OB들이며, 그 평균연령은 현재 67세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도 없으며 봉급도 전혀 없습니다. 연수를 담당하는 코스리더, 내외로부터 의뢰받은 조사연구 보고서의 작성등, 그때마다 사례금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한 활동입니다.

왜 KITA사업이 이러한 OB기술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가 하면, 도상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망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최신기술이 아니라, 일본의 공업기술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린 기술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일본의 공업의 발전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OB기술자에 의한 연수는 적정기술의 이전이란 점에서,

또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KITA의 연수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北九州市가 20년전, 30년전에 직면하여 그 후 극복한 공해대책, 환경기술입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제로 뒷받침된 귀중한 노하우이며,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스스로 연수원의 니즈에 맞도록 작성한 독자적인 것입니다.

## (KITA가 지향하는 것)

나누어 드린 KITA 팜플렛의 2페이지를 보십시오. 「KITA는 산업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지향한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창립 이래의 정신입니다. 1992년의 브라질 지구서밋에서의 구호였던 「지속가능한 개발」을, KITA는 그 10년이나 앞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 (KITA의 사업)

KITA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연수사업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를 보십시오. 전년도에 JICA로부터 위탁받아서 실시한 연수의 일람표입니다만, KITA 설립시에는 코스 하나만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생산성향상기업, 환경대책, 메인테넌스(보수)기술에 관한 25가지 코스를 실시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서 일본의 ODA예산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연수기간은 평균 4개월, 배경에 색칠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 연수를 수용한 나라들입니다. KITA에는 연수시설은 없습니다. 연수 거점은 JICA九州국제센터이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많은 세미나실, 신형 연수기기를 갖춘 실습실, 국제색이 풍부한 메뉴를 마련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료 3을 보십시오. KITA가 전년도에 개별적으로 위탁받아서 실시한 연수의 일람표입니다. 약 20가지 코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반이 한국의 연수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관해서는 北九州市가 大連市와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로 사업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4를 보십시오. KITA의 도장을 찍은 수료증서를 받고 北九州를 떠난 연

수원은 3월말 현재로 98개국, 2,1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귀국연수원으로부터 연하장이나 그리팅카드가 산더미처럼 배달되고, 그 수는 모두 합쳐서 2천장을 넘고 있으며, 정말로 더 이상 감사할 말이 없습니다.

연수원을 수용하는 측에 관한 것은 자료 5를 보십시오. 北九州에는 중후장대(重厚長大)로부터 경박단소(輕薄短小)까지의 여러 기업군과, 소재산업으로부터 하이테크, 바이오등 광범위하고 깊어 있는 하드·소프트 양면의 기술축적이 있으며, 인재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JICA의 연수코스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OB를 포함하여 기업, 행정, 대학으로부터 매년 연 1,800명의 강사 여러분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KITA팜플렛의 제일 마지막에 첨부된 책자인 「연수코스 협력기관」을 보십시오. 연수사업은 北九州市를 중심으로 九州, 山口縣의 산·학·관 약 230개 단체의 네트워크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홍색 부분은 대학이나 시청등 공직기관입니다. 종축에 연수코스 이름, 횡축에 연수협력기관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으며, 그 연수에 있어서 공장시찰이나 강사파견 등으로 협력받고 있는 기관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산·학·관의 네트워크가 KITA의 재산입니다. 연수사업 외에 전문기술자의 파견사업으로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한국 단기전문 기술자파견이나, 중국, 태국, 케니아 등에 대한 기술자의 파견, JICA의 컨설팅사업에도 최근에는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KITA가 힘써 온 주요 프로젝트로서 「大連 환경모델지구 정비계획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에 北九州市의 우호도시인 大連市에 대해 우리가 「중국에는 경제특구는 있지만 환경대책의 모델이 될만한 환경특구를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한 바, 중국정부의 국가중점 프로젝트로서 지정되어, 그것이 1996년에 「大連 환경모델지구 정비계획조사」로서 ODA개발조사로서 채택되어,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는 北九州市와 KITA를 비롯한 지역의 기술자로 구성된 北九州조사단과 JICA조사단이 공동으로 실시합니다만, 이러한 시도는 ODA예산으로서는 첫 시도이자, 동시에 지방차원에서의 협력이 ODA안건이 된 첫 케이스이며, 현재 ODA의 바람직한 모습의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구적인 사례로서 채택된 경위가 있으며, 책임의 중대성을 새삼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 (KITA의 한국과의 기술협력)

KITA의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주된 5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선 첫째는, 재단법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수사업입니다. 이것은 1993년에 北九州市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정부의 상공자원부로부터,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술력·생산성향상 등에 관한 기술협력에 대한 의뢰가 있었고, 이를 받들여 1994년부터 제1회 연수가 실시된 것입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카운터파트가 되어 연수생의 모집·일본어연수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1회 연수코스는 「강제의 가공과 가공특성」코스, 「생산성향상기술」코스, 「산업폐기물 처리기술」코스등 3가지로, 각각 정원 10명으로 약 2개월 내지 2개월반의 기간으로, 강의, 공장시찰, 실습등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4번의 연수를 실시했으며, 연수 수료자는 125명에 달했고, 작년에는 기존 3가지 코스에 더하여 새로 「설비 메인테넌스관리」코스를 설치하여 실시했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양재단의 사업으로서 1995년부터 北九州市 지역의 OB기술자를 지도자로서 한국의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는 「단기 전문기술자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번의 파견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3개사에 대해 14명의 기술자를 파견했습니다.

세번째로, 「仁川광역시 주물·금형관리연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北九州市는 자매도시이며, 1996년에 양도시간에서 「北九州市와 인천광역시간의 산업기술에 관한 협력추진협정서」를 체결한 바, 이 협정에 의거해서 北九州市의 요청으로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의 주물·금형에 관한 생산관리등 연수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협력 아래 8일간에 걸쳐서 22명에 대해 작년에 실시한 바,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한국 생산성향상 기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재단법인 해외기술자연수협회(통칭 AOTS)와 北九州市의 조성을 얻어서 한국의 안산시에서 1주일간에 걸쳐서 약 50명의 중소기업의 중견기술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생산성향상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北九州市 지역에 축적된 기술·실례를 중심으로 한 연수과정을 채용했고, 마지막 날에 있는 패널디스커션에서는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등 대단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섯번째로, 「한국 자치체 환경연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北九州市가 산·학·관·민이 협력으로 극복한 공해대책의 노하우를 한국의 지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며, 北九州市와 KITA의 공동으로 작년 8월에



실시했습니다. 대단히 호평을 받아, 올해 3월에는 北九州市에서의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에 강사를 파견해서 비슷한 내용의 세미나를 막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는 매년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공장시찰을 중심으로 한 연수 수용에 대한 의뢰가 있으며, 기꺼이 수락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관해서는 이상과 같습니다만, 다음에 그 특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입니다. 비행기로 서울에서 福岡까지는 약 1시간, 부산에서 福岡까지는 약 40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나 효율이 좋은 기술협력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기술연수의 교육과정은 JICA의 연수코스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중소기업에 위해 KITA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단히 실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연수생을 수용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대단히 예의가 바르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국땅에서 언어 문제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는데도 예의 바르고 바이탈리티가 많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재의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연수생을 보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연수생이 귀국하기 전에 액션플랜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연수생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의외로 검소하며 자기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로 상대방 국가를 보고 직접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九州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九州와 한국의 교류의 유대가 더욱 더 확대되어 가도록 KITA도 미력이나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기술협력에 관한 소감)

마지막으로, KITA가 18년간에 걸쳐 실시해 온 국제협력에 대하여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도상국에 관한 일반적 소견이며, 한국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 입장에 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협력은 단순히 새 기술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문화, 사정, 기술수준 등을 잘 이해하여, 그 이해에 기초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술협력의 첫걸음은 인간육성」이라는 점입니다. 도상국의 기업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기술지식은 갖고 있으나 일본의 기술자처럼 생산현장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할 능력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종전처럼 신기술을 가르치는 일 외에 인재능력향상의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상국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의 노우하우를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업의 지적재산에 속하는 것은 기업측의 협정에 의거해서 유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KITA와 같은 NGO단체가 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KITA가 협력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공업기술에 있어서 공업의 기초가 될 기초적 기술이나 관리기술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들 공업의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유상기술협력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상국에 대해 우선 관리자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육성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하지만, 인재육성협력은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극히 눈에 띄지 않는 협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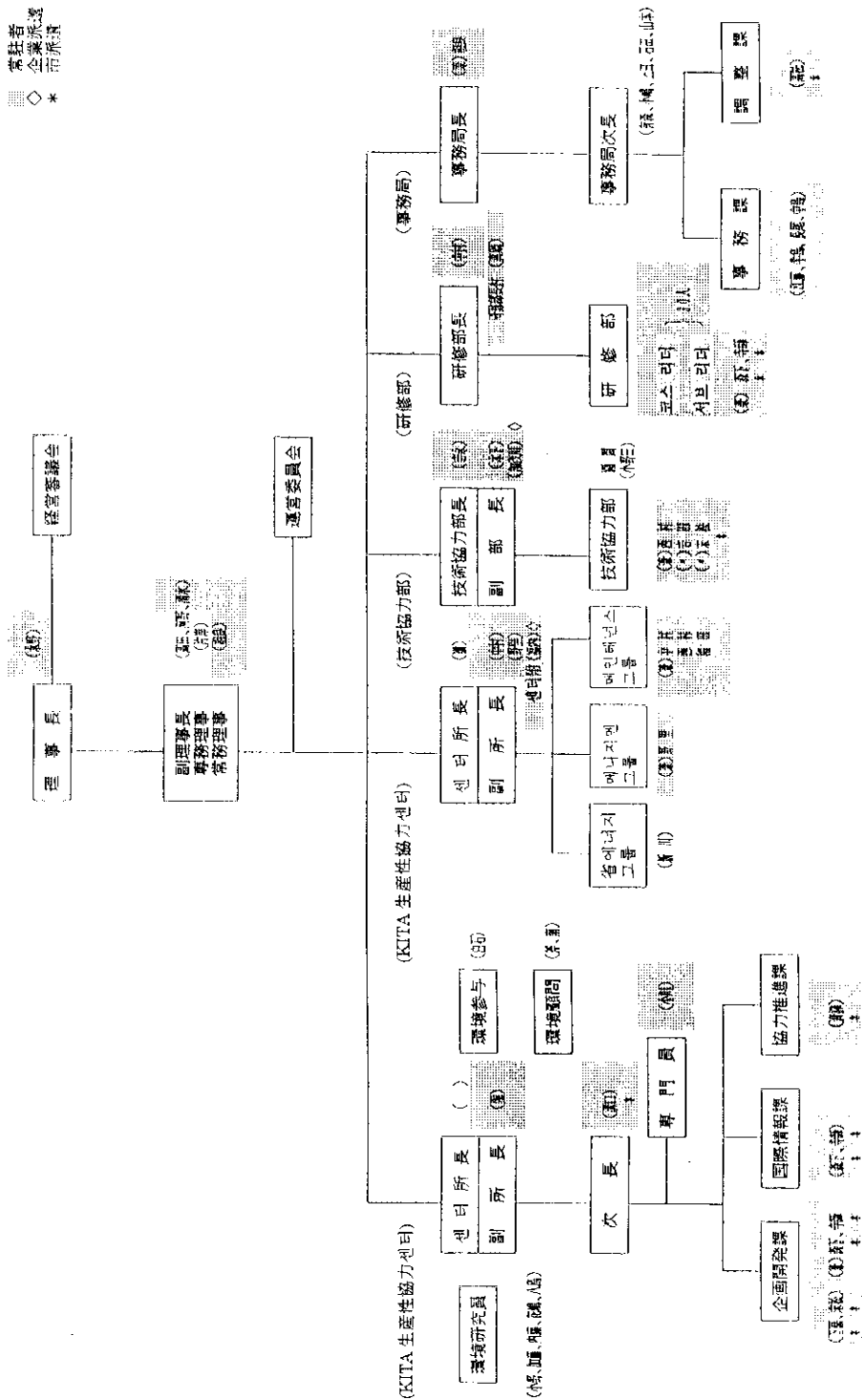
KITA는 팜플렛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구규모의 사랑」을 테마로 하여, 「생산성향상기술」이나 「환경대책기술」등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로 아름다운 지구를 인계해 줄 수 있도록 산·학·관·민의 협력 아래 「인재육성」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한·한일경제인회의를 계기로 九州와 한국의 교류가 가일층 심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財)北九州国際技術協力協会(KITA)組織図

1998年4月現在

◆ 常駐者派遣  
◆ 企業派遣





1997年度 KITA 個別實施研修科目 實績表

番 号	コ ス 名	実施 回数	定員	委託先機関等	コスリダ (札幌コスリダ)	1997 年												1998 年		
						4	5	6	7	8	9	10	11	12	1	2	3			
1	三浦市立加工工業団地(現地)	4	9	三浦市立加工工業団地	協栄製紙(札幌)					9/23				12/3	(小倉支店)					
2	三浦市立向上技術	4	9	三浦市立向上技術	小松製(札幌)					9/23				12/3	(小倉支店)					
3	産業廃棄物処理	4	10	三浦市立向上技術	三浦市立向上技術					9/23				11/8	(小倉支店)					
4	設備メンテナンス管理	1	9	三浦市立向上技術	野里製(札幌)					9/23				12/3	(小倉支店)					
5	鋳物管理技術	1	11	三浦市立向上技術	丸田製(札幌)					10/11				10/18	(TAKADA 研修センター)					
6	金型管理技術	1	11	三浦市立向上技術	木下健太郎					10/11				10/18	(TAKADA 研修センター)					
7	T P M 研修	6	13	韓国標準協会	吉永博一	5/10	5/15	(各 受講企業)												
8	生産性向上技術(現地)	1	47	新城市協会(AOTS)等	永澤島 郎					10/27				10/31	(韓国中小企業振興公団札幌交流センター)					
9	地方自治体環境研修(受入)	1	18	北九州市	米沢 昌					8/18	8/26	(TAKADA 研修センター)								
10	地方自治体環境研修(受入)	1	200	北九州市	堀 隆二															
11	大連企業研修 (7-8期)	3	4	北九州市	吉田義徳	10/23								10/4	(各 受講企業)					
12	大連市立三浦地区調査CP研修	1	3	三浦市	吉永博一									1/19	2/7(KIC)					
13	大連市環境技術者研修	5	6	三浦市	吉永博一									12/3	12/8(KIC)					
14	大連市環境技術者研修	5	1	三浦市	寺部 朝子					7/3					1/14 (KIC)					
15	APSC工業所有権(特許・商標)	1	19	発明協会	木下健太郎								11/10	11/14 (KIC)						
16	APSC工業所有権(特許・商標)	1	20	発明協会	木下健太郎											(KIC) 3/9	3/13			
17	CCT研修(管理者)	2	21	石炭利用総合センター	黒澤 準一					9/8	9/24	(國際村交流センター)								
18	CCT研修(技術者)	2	21	石炭利用総合センター	黒澤 準一							10/20	11/21	(國際村交流センター)						
19	北九州市立三浦地区調査CP研修	1	1	(北)國際村交流センター	寺部 朝子							(KIC) 10/20								3/13

・ ( ) は 主 要 研 修 場 所

## KITA 海外研修員 受容人員數

資料 4

[illegible]

(1998年3月31日現在)

資料 5

九州國際센터(JICA) 集團研修코스 중  
北九州國際技術協力協會가 受託한 研修코스 講師總括表

(財)北九州國際技術協力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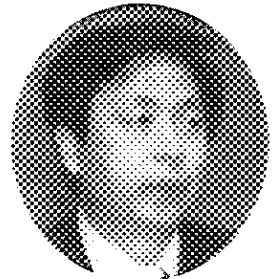
No	研修코스名	大學高專 關 係	縣 · 市 公 共 關 係	企業關係	K I T A 委 託 講 師	計
1	강재의 가공과 가공특성	4	3	70	12	89
2	플랜트 메인テナンス기술	6	1	72	9	88
3	산 업 의 학	65	14	2	0	81
4	자 동 계 어 ( 기 초 )	19	4	45	1	69
5	산 업 환 경 대 책	14	35	54	7	110
6	생 산 성 향 상 기 술	0	0	30	56	86
7	설 비 진 단 기 술	22	0	67	25	114
8	플랜트용 기계보전부품	3	16	110	13	142
9	산 업 폐 수 처 리 기 술	4	12	59	2	77
10	에 너 지 관 리	4	10	89	24	127
11	공 장 반 송 시 스 템	2	0	18	19	39
12	보 전 관 리	0	0	67	26	93
13	유압과 메카트로닉스	5	0	38	5	48
4	설비의 리노베이션	0	5	62	9	76
5	日 墨 교 류	0	0	37	78	115
6	생 활 배 수 대 책	5	70	19	3	97
7	대가오염원 모니터링실습	6	32	36	4	78
8	폐 기 물 처 리 실 습	5	53	8	5	71
19	비 파 괴 검 사 기 술	2	3	29	5	39
20	파레스티나지원 · 오수처리	3	14	1	1	19
21	동 구 산 업 환 경 대 책	0	19	2	1	22
22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톱매니지먼트 세미나	0	5	16	2	23
23	터키 / 성 에 너 지 및 에 너 지 관 리	5	6	22	5	38
24	남아프리카 용접기술	0	0	8	2	10
합 계		174	302	961	314	1751

(주) 상기 강사수에는 시뮬레이터연습 및 기업실습의 보조지도원을 포함한다.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變化된 韓國의 外國人 投資環境



大韓民國 産業資源部  
貿易政策室長 吳剛鉉

### [인사 말씀]

-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경제계 대표 여러분,

저는 이번 제3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 및 5월중 방한할 對韓투자환경조사단의 영접 준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이후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는 IMF·IBRD 등 국제 금융기관과 주요선진국들의 협조로 급박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기둔화, 실업증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핵심적 과제임



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투자기업들이 8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변화된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外國人 投資 關聯 制度改竊 基本方向]

☐ 먼저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의 기본방향을 「규제·관리」 중심에서 「지원·촉진」 기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요자중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주도라는 대원칙 하에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일법에 총괄한 특별법형식의 외국인투자촉진법(가칭) 제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지를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여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전면 자유화할 예정입니다.

#### [外國人 投資에 대한 制限을 대부분 撤廢]

☐ 무엇보다도 일본 경제인 여러분들의 우선 관심사항은 어떤 사업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 첫째,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

써 사업전망이 밝은 분야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98. 4. 1 부터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 등 10개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을 추가로 철폐함으로써,
  - 외국인 투자대상업종 1,048개중에서 1,006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 상반기 중 남아 있는 42개 제한업종 중 20개업종에 대해 추가로 전면 개방할 계획으로 있어
  - 금년 하반기에는 의료보험업, 도박장업등 극히 제한된 일부 업종(미개방업종 : 12개추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미개방 업종 현황(18개 업종) : 보통작물생산업, 육우사육업(2001 부분개방), 근해어업, 연안어업, 수도사업, 담배제품제조업, 주유소운영업(99. 1. 1 전면개방), 고기도매업(2001. 1. 1 부분개방), 기타 항공운수서비스업, 의료보험업, 산업재해 및 사회보장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제공업(2001. 1. 1 부분개방),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 둘째, M&A 활성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에 M&A 중개센타를 설립(1998. 4. 15)하여 외국인투자가 여러분들이 손쉽게 한국내 대상 기업을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까지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 최근, 한국정부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고,
  - 국내기업 지분의 1/3까지는 인수시 피인수기업의 이사회 동의요건을 폐지한 바 있으며, 98년 상반기중 피인수기업의 이사회동의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의 개방도 확대하여 금년 3월부터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였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하였습니다.

- 기존의 취득 한도인 4% 미만을 대폭 확대하여 10%까지는 금감위 신고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 초과시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원칙적으로 10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外國人 投資家의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최대한 보장]

○ 그 동안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 하기 위해 선진국수준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 첫째, 98. 2. 20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년간 시행이 유보되었던 정리해고제도를 조기도입하였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둘째, 98. 2. 20 파견근로법(파견근로제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98. 7. 1일부터 시행예정)
- 또한, 전국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투자기업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상담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문제의 안정이 신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 현재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노사문제는 거의 발생치 않고 있으며, 국민·근로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에서의 노사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와 함께 공장용지를 싸고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손쉽게 한국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와 충남 천안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변공단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책정·운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를 값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공단 임대료·분양금액

(광주) 임대료 : 월간 40원/m', 분양액 : 8만7천원/m'

(천안) 임대료 : 월간 121원/m', 분양액 : 15만5천원/m'

- 특히, 미화 100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미화 1,000만불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기업의 한국내 사무소 설치 및 외국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시 용도제한 및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제한을 없앴으며,
  -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98. 4월 현재 관련법률 개정 추진중)

○ 셋째,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이 한국내 투자 이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외차입시 국내기업에 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외모기업 및 관련기업으로부터의 시설재도입용 5년이상의 장기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있고,
-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이내,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50%이내에서 자본재·원자재 수입자금 등의 용도로 3년이내의 단기외화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외국환관리법 전면개편을 통한 외환관리 자유화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용도제한도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대내외 기업에 대해 상업차관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으며, 본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高度技術分野 投資에 대한 特別支援]

- 한국정부는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많은 외국인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전자·정보, 정밀기계 등 7개분야 261개 제품 및 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시에는 일반사업에 대한 투자시보다 많은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고도기술수반사업 범위 : 7개분야 261개 대상기술 (전자·정보, 정밀기계, 신소재, 항공·수송, 환경, 에너지 등)

전자·정보 및 전기 분야	산업용 자동제어장치 및 전용부품 등 79개 제품 및 기술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산업용 로봇 및 핵심부품 등 36개 제품 및 기술
재료·소재 분야	정보산업용 고분자 등 38개 제품 및 기술
신물질·생물산업 분야	전자공업약품 등 21개 제품 및 기술
광학·의료기기 분야	레이저 응용기기 등 14개 제품 및 기술
항공·수송 분야	항공기 기체설계 및 제작기술 등 35개 제품 및 기술
환경·에너지·건설 분야	폐수·정수처리용 삼투막 및 분리막 제조기술 등 42개 제품 및 기술

- 첫째,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면제기간을 7년간으로 연장하고 그 후 3년간 50%감면할 계획이며,
- 둘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있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8~15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셋째, 고도기술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 넷째, 종전에는 제조업에 국한되던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첨단산업업종과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각종 지원조치를 감안하여 고도기술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One-Stop 行政서비스 強化]

□ 이와 같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여 對韓 투자시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없도록 KOTRA를 중심으로 일관된 행정지원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One-Stop 서비스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여러 부처에 산재된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일괄규정하여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 인·허가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인·허가로 간주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일관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내 투자를 결심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의향서 제출에서부터 기업운영 상 애로요인까지 일관되게 파악하여 밀착 지원하고,
- 해외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KOTRA 해외지사가 외국인 투자가의 손발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 [外國人の 포트폴리오 投資 活性化]

- ☐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들의 portfolio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우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여 1인당 한도를 종전의 7%에서 50%로, 종목당 한도를 26%에서 55%로 확대하였으며, 금년중에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공채, 특수채, 단기회사채등 채권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모든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하였습니다.
-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98년 2월 1단계 조치로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상품을 개방하였으며, 98년 말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등에 대해서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장외거래 투자한도(종목당 15%, 1인당 5% → 종목당 55%, 1인당 50%)도 확대하였습니다. (4. 1)

### [日本の 對韓投資環境調査團 訪韓 準備]

- ☐ 마지막으로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하는 對韓투자환경조사단의 활동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일본 통산성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한규모가 당초 7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일본의 對韓투자환경조사단 방한시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 지난 3. 18~22간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일본 통산성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한·일 공동사전답사단을 투자조사단 방문대상지역인 서울, 전주(군산), 천안, 부산지역에 파견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투자유망공단 및 일본계투자기업을 방문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산업자원부는 사전답사결과를 토대로 일본투자조사단이 방한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4박 5일간의 긴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사를 여유있고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 등을 조정하였으며,
  - 방한기업인 및 경제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국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상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심있는 분야의 한국기업인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 관계부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경제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일본투자환경조사단 방한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여러차례의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고 방문현장을 확인,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는 방한일본기업인들의 추가적인 관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준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금번 회의기간 중에 본인이나 한국측 대표단들에게 언제라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저희 산업자원부는 투자조사단 방한전에 동경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일본 각지역에 있는 KOTRA 무역관 관계자들이 방한하실 조사단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할 예정인 바, 불편하신 사항은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맺는 말 : 日本企業의 새로운 對韓 投資機會]

- 현재 한국에서는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외국인투자환경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거시경제측면에서는 그간 고평가되어 있던 환율이 크게 인상되었고(96년말 대비 미국\$에 대해서 40%, 일본¥에 대해서 35% 절하), 실질임금은 물론 명목 임금수준도 하락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업현장의 노사관계도 협력적인 관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 한편,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과 외화 부족으로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서 주식, 부동산, 기업매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여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 달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변화된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한국을 잘 아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투자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현재 많은 외국기업의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BASF, 볼보 등 유럽기업 및 미국의 보워타, 코카콜라, P&G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M&A 결과 당초 우려했던 노사간의 문제·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경우 유망한 분야로서는 M&A, 벤처기업, 첨단산업, 부품산업, 그리고 부동산 및 금융부문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일본과의 투자협력의향 한국기업현황」(98. 4. 10 현재) 참조
- 지금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밝다고 봅니다.
- 한·일 양국의 지리적·문화적 근접성, 한국의 숙련된 기술·노동인력 등을

감안할 때,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며, 한·일 양국이 투자·기술협력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을 통해 21세기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지난 번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께 말씀드렸듯이 이번 투자조사단의 방한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 宮崎와 電氣化學工業



旭化成工業 (株)  
取締役相談役 弓倉 禮一

미야자키현(宮崎縣)에 관하여 저는 두가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의 하나는 미야자키현이 옛부터 역사적인 전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미야자키縣 북부에 있는 다카치호(高千穂)와 미야자키市 북부에 있는 기리시마(霧島)는 日本國의 起源 場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일본에서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며, 現地에 가보면 어딘지 모르게 엄숙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인 다카치호郷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독특한 “이와토 카구라(岩戸神樂)가 매년 연말에 奉納됩니다. 향토색 짙은 오랜 전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서 매우 흥미롭고, 누구나 그 起源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여러 傳説과 遺跡, 古墳이 존재하여 흥미와 관심이 끊임없이 샘 솟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회사의 創業地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 기회를 빌어 본 미야자키현에서 76년 전에 操業을 시작한 富社의 歴史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의 창립자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 遵)는 일본의 無機電氣化學 창시자의 한 사람이며, 水力 發電으로 생산한 저렴한 電力을 이용하여 化學公業을 일으킬 것을 꿈꾸었습니다. 1922년, 미야자키현 노베오카(延岡)市에 풍부한 水資源이 있음을 알게 된 창립자 노구치씨는 恒富村의 村長의 안내로 아타고산(愛宕山)에 올라 주위를 둘러본 후 즉시 3만평짜리 用地 購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일본 최초로 이탈리아로부터 기술 도입한 카잘레法을 이용하여 12,500톤의 암모니아 제조공장을 건설했습니다.

1928년 이후 合成窒酸・濃黃酸・질산암모니움 등의 공장을 잇달아 건설하고 각각 제품화함으로써 뱀베르크・레이온・다이너마이트・窒化綿・黃酸암모니움 등의 제품을 產出했습니다. 이 系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工場群은 無機電氣化學에 의한 一大 콤비나트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처럼 하나의 기술의 源流로부터 벗어나는 일없이 각 제품을 組合한 多角化를 이룩했던 것이며, 당사는 그 첫 단계부터 여러 化學品の 多角的 生産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美軍은 이 노베오카 地區까지 空襲을 가했고, 뱀베르크공장 등은 壤滅的으로 破壞 당했습니다. 전쟁 종식 후, 일찍이 복구작업에 착수하여 1945년 10월에는 레이온 제조를 재개했고, 이어서 황산암모니움・다이너마이트・셀룰로이드 등의 제조를 재개했습니다.

1948년에 일본 전국을 뒤흔들었던 勞動 爭議의 波高는 富社에까지 파급되어 富社에서는 노동법의 판례로 남을 정도의 치열한 勞使間 鬭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 쟁의를 극복한 후에는 비 내린 후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대로 매우 양호한 노사관계가 확립되어 당사의 擴大・發展을 위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화학 공업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쟁 전의 無機化學 중심의 콤비나트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石油化學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 새로운 조류에 대해 미즈시마(水島 - 오카야마현)・가와사키(川崎 - 가나가와현)에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보유하므로써 대응했으나, 이 노베오카도 실질적으로 크게 변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肥料로서 過磷窒酸・아크릴로니트릴모노마를 사용한 케시밀

론, 발효법에 의한 調味料 제조, 나일론 6 및 66, 아디포니트릴과 아디핀酸 등 나일론 66의 원료, 에스텔 長纖維 등등 새로운 석유화학제품도 노베오카 工場의 代表的 제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移動 通信用 半導體 등 특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도 350억엔을 투자하여 건설하여 순조롭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당사의 創業地 노베오카를 오랜동안 계속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 외에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聲援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당사의 運動部の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級의 선수가 복적거리느(?) 마라톤·柔道 등에 회사 직원, 지역주민 할 것 없이 응원에 열을 올리곤 합니다. 이러한 有形·無形의 지역과의 연대감이 21세기 들어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화학 기술의 발전에 힘써와 동시에 公害問題 등으로 지역 주민들께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환경의 보전에 全力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提 案 〉

## 시스템 再點檢의 提案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村上 弘芳

본 합동회의는 1969년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3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였음을 상기하면 본 회의는 바로 그 단계부터 한국경제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해 왔으며, 양국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follow해 왔습니다.

合同會議에 보고해야 할 分科會의 전문분야의 위원회로서 지금까지 무역투자위원회와 기계공업위원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산업일반위원회등 4개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켰고, 冒頭의 두 위원회는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넷 중 산업일반위원회를 제외한 세 위원회는 한국측에 한일경제협회가 아직 발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므로 각기 원로급 단체가 한국측 사무국을 담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음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兩協會가 주최하는 교류사업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韓日經濟協會와 市場協議會(일본측 JETRO가 사무국을 담당)가 공동개최하는 訪日輸出促進團 사업은 이미 57회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측에서는 日韓經濟協會, 한국측에서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가 공동개최하는 訪日投資誘致團(現 産業協力團)과 訪韓投資環境調査團이 있고, 게다가 양협회가 공동개최하고 있는 經濟人交流

促進團과 청소년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機構와 事業에 관하여 지금까지 合同會議라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日韓經濟關係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각 委員會와 事業의 극히 개별적인 사안에까지 개입하고 成果나 실적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개선책을 강구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時代가 달라지고 環境이 바뀌어 우리 위원회와 사업에 관한 기대감이나 평가도 당연히 바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위원회와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합동회의가 서른 둘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하여 이들 機構와 事業,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全體시스템을 巨視的·微視的, 나아가서 比較評價 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改革과 改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존의 각 전문위원회와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今年度 1998년을 이 再檢討의 해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각 전문위원회와 사업의 올해의 共通課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결과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31회 經濟人會議에서 答申하고, 채택이 되면 그 해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의 점을 제안 드립니다. 한편 作業의 전제로서 각 위원회의 機構 및 事業方式 등을 각 主體가 개별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合同會議가 총괄하는 토털 시스템(total system)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려됩니다.

## 答 辯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申 德 鉉

韓日經濟協會의 申德鉉 專務입니다.

방금 말씀을 마치신 村上 전무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本會議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會議입니다. 그 동안 본회의는 韓日兩國의 무역증진은 물론 산업기술협력과 교류증진등 兩國 민간경제협력 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에 대해 양국 經濟人間의 활발한 논의의 場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본회의 산하 4개 專門委員會는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論議와 자료교환이 이루어져왔으며, 또한 양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各種事業도 소기의 成果를 거두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최근 時代의 환경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IMF事態라는 최악의 경제위기국면에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 경제도 구조조정 등의 대변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時代變化에 맞춰 본회의는 물론 각 전문위원회, 그리고 양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친 再檢討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今番 會議에서 전체시스템에 대한 再檢討를 提案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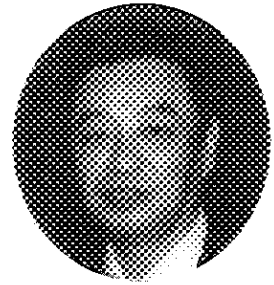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當協會는 물론 各 專門委員會 韓國側 事務局은 일본측의 제안을 수용키로하고 今年度 각 전문위원회 및 제반사업의 활동은 계속해 가면서 論議하는 것으로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아 물론 本會議과 관련된 모든 事業이 時代變化에 맞게 재정비되고, 보다 效率的이고 發展的으로 運營될 수 있는 方案을 도출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以上으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提 案 〉

##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誘致



大韓製糖(株)  
會長 薛元鳳

오늘 自然의 景觀이 뛰어나 樂園이라 불리는 이 곳 미야자끼市에서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새로운 두 분 會長님을 비롯하여 經濟界 重鎮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提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本 밋션은 지난 '89年 첫 事業을 시작한 이래 韓國側에서 6回, 日本側에서 2回 相互訪問하여 세미나 및 懇談會 개최, TOP經營人 招請講演會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兩國의 協力方案에 대한 진지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져 兩國 經營人間的 相互理解와 交流增進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第8回 交流事業은 韓國의 外換危機 등 어려운 諸般 環境에 따라 실시가 되지 못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麻生 泰 사장님 및 日本 代表團 여러분께 諒解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밋션의 名稱과 관련하여 今年부터 변경 실시되는 韓日經濟人會議와 의 명칭중복을 피하고, 본 밋션의 目的과 對象을 감안하여 『韓日中堅經濟人交流 促進團』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금년부터 實施키로 兩事務局間에 합의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昨年 泰國의 通貨危機를 계기로 世界の 성장센터인 아시아經濟의 전도에 명암이 일기 시작하여 韓國은 IMF 事態를 맞이하였고, 日本 또한 버블붕괴의 후유증으로 金融機關의 파산 등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今年들어 韓國은 政府와 企業, 勤勞者가 합심하여 강력한 構造調整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日本도 行政・財政改革과 金融빅뱅 등 改革作業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兩國 모두 經濟轉換期를 맞고 있는 상황속에서 韓日兩國은 그 어느때보다도 資本과 技術의 相互補完의인 提携와 協力關係를 가일층 강화해 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世代를 책임질 젊은 經濟人間의 빈번한 交流協力を 통한 相互理解와 信賴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됩니다.

이에 今年에는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을 韓國에서 誘致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은 日本 經濟人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轉換期를 맞고 있는 兩國의 현재 모습이 未來發展의인 協力關係를 위해 활발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 答 辯



麻生시멘트(株)  
社長 麻生 泰

麻生시멘트의 麻生 입니다. 第一企劃의 田中宏明 相談役의 뒤를 이어 작년 8월부터 일본측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방금 韓國側으로부터 提案이 있었던 「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에 관해서는 日韓兩國間의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담당할 젊은 經濟人간의 교류강화라고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當協會 회원중에는 오너급의 기업이 적은 것과 벤처기업도 적은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유익한 사업으로써 실시하기 위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日韓 兩事務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提 案 〉

## 韓國訪日輸出促進團・産業技術交流및선 派遣 및 對韓投資環境調查團 誘致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申 德 鉉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提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하며, 提案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世界經濟는 國境없는 經濟活動으로 國家間・地方間 비지니스의 機會와 形態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韓日兩國은 經濟轉換期를 맞이하여 숨가쁜 構造改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構造改革을 통해 韓日兩國은 未來指向的인 信賴關係를 바탕으로 相互繁榮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韓日兩國의 交易關係를 돌이켜 보면, 韓國은 지난 '65年 1億弗의 貿易赤字를 기록한 이후 매년 확대되어왔으며 '96년에는 156億弗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昨年에는 130億弗로 貿易赤字 擴大規模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規模의 貿易不均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貿易赤字는 構造的인 관계로 短期間內 改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兩國이 貿易擴大를 통한 均衡을 이루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日本市場의 開放 努力이 加一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1985年 이래 總 57회에 걸쳐 실시해 온 『韓國訪日輸出促進團』은 지금까지 國內 中堅・中小企業體 2,146個社가 참가하여 延 197個의 日本都市를 방문, 24,434件의 對日輸出 商談活動 및 日本 現地商工人과의 交流活動을 전개해 왔습니다. 同 輸出促進團은 今年中에도 3회에 걸쳐 東京을 비롯한 日本 各地域에 파견할 예정이며, 오는 6月에는 30餘個社 規模로 大阪, 東京을 방문하여 商談活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同 促進團이 소기의 成果를 거둘수 있도록 많은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政府는 投資環境 改善을 통한 外國人投資의 적극적인 誘致를 위해 規制緩和 및 制度整備 등의 개혁적인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月에는 日本으로부터 『對韓投資環境調査團』이 訪韓하여 工團見學, 商談活動 등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今番 밋션을 통하여 많은 日本 企業들이 우리의 投資環境 改革推進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오며, 日本 財界 여러분의 많은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兩國 中小企業間 交流促進 및 技術協力 強化를 위한 産業技術協力推進事業의 일환인 『産業技術交流밋션』事業은 1993년부터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今年에도 알찬 內容과 활발한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 代表 여러분께서도 積極 協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答 辯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村上 弘芳

방금 申德鉉 專務理事의 제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제안은 세가지였습니다.

모두 日韓 兩國間의 경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對應해야할 課題로 되어 있습니다. 즉 貿易, 投資, 産業技術協力에 관한 提案입니다.

먼저 訪日輸出促進團에 대해서입니다만, 이 사업은 韓日經濟協會와 日本貿易振興會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안 말씀대로 同棼션은 過去 13年間, 57回의 訪日棼션을 통해서 對日輸出 확대에 참으로 커다란 實績을 거두어 왔습니다. 今年부터 朴龍學 단장에서 金相廈 단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이제부터 새로운 歷史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日韓市場協議會와 日本貿易振興會가 중심이 되어 關係團體 및 有志企業의 협력을 얻어 종래와 같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對韓投資環境調查團입니다만, 이것은 오는 5月 本會議의 日本側 단장이신 藤村正哉 日韓經濟協會 會長을 단장으로 하여 官民合同의 체제로 韓國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群山, 天安, 綠山 등의 工業團地 시찰을 시작으로, 크게 개선된 韓國의 投資環境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큰 成果를 거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産業技術交流및선입니다만, 이것은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으로 移管된 이후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가을, 예년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日本에서의 각종 技術研修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共同提案〉

## 青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福田 豊

日韓經濟協會의 福田입니다. 青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에 대해, 일한 양국의 공동제안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교류사업은 日韓國交正常化 20주년을 기념하여 1985년에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한국으로부터는 모두 합해서 13번에 걸쳐 586명, 일본으로부터는 1988년 이후 모두 합해서 10번에 걸쳐 305명, 양국 합치면 891명의 대학생들이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참가학생들은 日韓・韓日經濟協會의 회원기업・단체의 임직원의 자제들입니다. 또한 교류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대학생 상호간의 교류, 홈스테이(민박), 사적이나 문화・산업시설시찰등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관점을 중시하여 폭 넓은 것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日韓 兩國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짚어질 大學生들에게 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시절에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서 얻은 경험이 장래적으로 그들이 사회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양국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매년 참가한 양국의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의 제출을 받고 있는 바, 일본측에서는 이를 저희 협회의 기관지인 「協會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매년 많은 학생들이 신선한 체험을 통해 이웃나라에 대한 막연하면서 고정적이었던 이미지가 대단히 具體的이고 友好的인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

히 같은 세대의 학생끼리의 친밀한 交流를 통해 서로 상당히 啓發되는 부분이 많고, 이를 계기로 해서 맺어진 友情을 향후에도 계속 간직하면서 오래 교류를 해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착실한 풀뿌리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21世紀를 향한 兩國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확실한 成果를 올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어, 금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의 전반적인 상황 및 학생들의 生活樣式이나 思考方式의 變化에 따라서 매년 개선해 나가도록 양협회간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兩國의 經濟界 및 兩國의 會員企業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靑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事業을 여름방학 기간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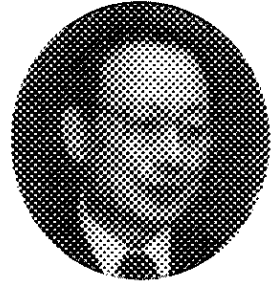
이상으로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안·답변사항은 회의 시간관계상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표없이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게 되었음.

## 全體會議 ②

## 第 1 分科會 報告 (韓國側)



(株)HOTEL新羅  
社長 李 吉 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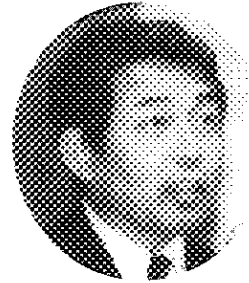
고지마씨의 말씀 중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만, 21世紀까지 이제 천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글로벌 時代에는 기업간의 戰略政策 같은 提携가 韓日間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이 임진왜란이 끝난지 꼭 4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날 때 韓國의 도공들 300여명이 이 곳에 와서 사쓰마야끼로서 무역 제1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곳에 韓國의 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韓日間에는 두나라가 協力해 나갈 때 더불어 繁榮을 했고, 서로 다룰 때는 두나라가 더불어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교훈 속에서, 어제 도요지마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韓國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日本의 도움을 얻으면 틀림없이 잘 克服해 나갈 것이라는 希望을 갖고 있으며, 또 자신도 있습니다.

이제 곧 결의문이 나오겠습니다만, 金融支援의 必要性을 강조해 주신 것도 고맙고, 또 박필수 전장관과 産業資源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對韓 投資에 최고의 찬스라는 것, 모든 면에서 韓國이 投資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 第 1 分科會 報告 (日本側)



麻生시멘트(株)  
社長 麻生 泰

JETRO의 이시가와(石川)씨로부터 「外換危機 以後의 아시아 貿易의 變化」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韓日關係라는 면에서 볼 때 不均衡問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不均衡 플러스 外換危機 결과, 貿易 전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韓國側에서는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程勳 박사님으로부터 「韓・日 貿易의 現況과 經濟協力 方向」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후에 앞으로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최대의 문제점인 만성적인 貿易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심리면에서의 위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다, 또 外貨 不足 상황이기 때문에 日本으로부터의 資金導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양국의 人的交流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韓日兩國에서는 현재 變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韓國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變革을 추진 중이고, 日本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中長期적으로 볼 때는 韓國쪽에서 훨씬 가시적인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日本側

에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長期的인 면에서 볼 때 어떤 박력이라는 면에서 韓國 쪽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中長期的으로는 韓國이 앞서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第 2 分科會 報告 (韓國側)



産業技術情報院  
院長 金圭七

저희 産業協力分野의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金圭七 입니다. 오지미(大慈彌) 선생께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異意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인다면 日本側은 다자관계 속에서, 또 삼자관계 속에서 韓日協力を 강조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國側은 당면한 兩國關係에 있어서의 相互協力を 더 강조하고 있고, 특히 日本에 대한 直接投資라든지 技術協力を 강조했습니다.

韓國側 發表者 가운데서도 日本의 構造調整 速度에 관심이 많았고, M&A에서도 日本이 좀더 어그레시브한 積極的인 자세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레시브하다는 뜻은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IMF 救濟金融 시기이기 때문에 韓國側은 金融支援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는 韓國側 발언자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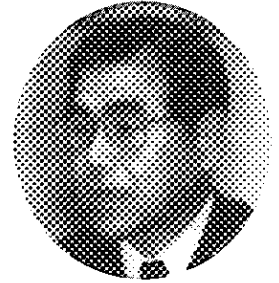
발언하지 못한 플로어에 있어서 개선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로서 주문을 보탠다면 이번 討論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中長期的 觀點과 當面한 觀點을 구별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총론적인 것과 각론적인 것, 그리고 包括的

인 것과 個別的인 것, 이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질서를 잡아서 討論을 했으면 좀더 效果的이지 않을까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더 改善하여 現實化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第 2 分科會 報告 (日本側)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大慈彌省三

오늘 두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日本側에서는 후카가와(深川) 助教授님께서 「日韓産業의 글로벌화와 2國間 經濟關係의 變容 : IMF時代에 대한 示唆點」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 주셨고, 韓國側에서는 柳寬榮 所長님께서 「韓 · 日 産業協力の 展望과 課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발표에는 상당히 공통된 부분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화 時代를 맞이하여 쌍무적인 관계만을 거론해서 의논한다는 것은 그다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놓고 의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日韓關係는 과거처럼 일본의 생산거점이다, 아니면 韓國이 종이고 日本이 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水平的인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는 그러한 관계에서 주로 大企業간의 戰略적인 提携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세번째는 韓國에 대한 日本의 진출이 영구거점이나 영업거점으로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 보다는 技術의 거점으로서 韓國에 진출한다, 日本도 역시 마찬가지로 技術의 據點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서 水平的인 思考를 가지고 韓國에 진출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示唆적인 發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점을 달리해서 柳寬榮 선생님께서는 지방과 지방, point to point라는 관계 속에서 좀더 커뮤니케이션이나 産業育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韓國과 日本 사이에는 인식의 갭(perception gap)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人的인 交流, 對話의 場을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갭이 없어지면 그러한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投資를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韓國과 日本 사이가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처럼 되면 어떨까, 日本도 언제까지나 폴세트형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부는 韓國에 이양하는 등,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처럼 日韓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體制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會議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日本이 高齡化되어 갔을 때 日本의 成熟産業, 熟練産業에 대해서는 그러한 熟練者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韓國으로 移轉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韓國側이 그러한 것을 受容할 수 있는 技術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對韓投資가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잊고 새로운 수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로이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 閉 會 式

〈閉會式〉

## 團 長 人 事



韓國側 代表團  
團 長 金 相 廈

尊敬하는 藤村正哉(후지무라 마사야)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간에 걸쳐 開催된 第30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를 閉會함에 있어  
간단히 人事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會議에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 始終一貫 眞摯하고도 활발한 討議를 하여  
주신데 대해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會議가 많은 成果를 거두고 成功裡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藤村正  
哉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關係者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力과 支援의 德分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感謝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開會式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韓日兩國의 堅固한 結束과 協調는 우리 두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世界 全人類의 發展과 繁榮에 크게 寄與할 것입니  
다. 또한 서로 힘을 합쳐 아시아의 總體的인 經濟難局을 克服하는데 先頭에 서  
야 할 것입니다.

이번 會議에서 韓日兩國은 現在의 危機狀況을 克服하고 아시아 經濟를 先導하기 위하여 더욱 緊密한 協力關係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確認하였으며, 韓國의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外國資本의 投資誘致 努力을 評價하고, 日本의 積極적인 投資促進 努力, 貿易不均衡 改善, 韓中日 中心의 環黃海經濟圈 構築等에 認識을 같이 한 것은 이번 會議의 중요한 成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0周年의 뜻깊은 會議에 激勵과 協力を 당부하는 兩國 頂上의 特別메시지 傳達이 있었습니다. 이를 契機로 韓日兩國은 보다 發展적이고 內實있는 經濟協力の 強化를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韓日經濟協會도 지난 30년간의 經濟協力の 成果와 相互 信賴를 바탕으로, 새로운 變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兩國의 經濟協力 增進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支援과 協力を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兩國 代表團 여러분의 더한층의 發展과 健勝을 祈願하면서 이것으로 閉會 人事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閉會式〉

## 團 長 人 事



日本側 代表團  
團 長 藤村 正哉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 동안 고단하실 줄 압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第30回 日韓・韓日經濟人會議 閉會에 즈음하여 日本側 團長으로서 人事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는 양일간에 걸쳐 아주 열의있게 討議에 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經濟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할 듯한 뜨거운 열기에 감싸인 그런 이틀 동안이었습니다. 심심한 感謝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會議를 成功裡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金相廈 團長님을 비롯한 韓國側 代表團과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의 積極인 協力과 支援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感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本會議를 이렇듯 훌륭히 行할 수 있었던 것도 미야자키현 關係者를 비롯한 事務局의 크나큰 盡力이 있었던 德分이라고 생각하고 感謝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開會式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21世紀의 아시아의 平和, 그리고 發展은 韓國과 日本의 經濟先進國으로서의 役割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兩國이 하루빨리 당면한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가일층 緊密해져서 이 콤팩트너로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先導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향해 本會議에서도 진지한 討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討議의 成果는 방금 共同聲明을 통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21世紀를 목전에 두고 兩國은 經濟基盤을 더욱 堅實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全球化가 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經濟成長의 레일을 깔아야만 하는 狀況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經濟의 拔本的인 構造改革을 積極的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日本과 韓國 兩國이 월드컵축구를 共同開催하게 됩니다. 21世紀의 아시아 時代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兩國의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더욱 더 중요한 기반이 되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日韓經濟協會로서도 이번 成果를 토대로 보다 效率的인 運營體制를 갖추으로써 가일층 交流를 돈독히 하고 서로간의 信賴關係를 더욱 강화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달에는 對韓投資環境調査團을 이끌고 韓國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까 韓國側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受容體制를 갖추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韓國의 現況을 잘 보고 조금이라도 韓國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聲援과 協力을 잘 付託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日本과 韓國의 관계는 아주 옛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關係의 基礎는 서로에 대한 信賴입니다. 서로에 대한 尊敬입니다. 信賴와 尊敬이 그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分科會에서 아오야마學院大學의 후카가와(深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韓國과 日本은 서로가 더 좋아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가장 必要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서로의 發展을 위해서 앞으로도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會議을 開催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미진했던 점, 不足했던 점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議長역을 맡게 되어서 不足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諒解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兩國 代表團 여러분들의 가일층의 健勝과 幸運을 진심으로 祈願드리고, 來年에 또 韓國에서 健康한 모습으로 만나볼 것을 기약드리면서 저의 閉會 人事로 대신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第30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1998年 5月 29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申 德 鉉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705號)

TEL : 02-551-1541~9 FAX : 02-551-1540